



창간 30년 <굿모닝인천>이

인천의 가치를 담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청민원센터 7층

2024. 01 JANUARY

## 굿모닝인천



1994  
SINCE

### 시민과 함께 한 책연冊緣

책으로 이어지는 인연을 '책연冊緣'이라 합니다.  
<굿모닝인천>이 시민과 맺은 인연입니다.

시민과 시민을 잇고,  
시민과 시정을 잇고,  
시민과 희망을 잇는 징검다리 <굿모닝인천>

1994년 <내고장인천>에서부터,  
2024년 <굿모닝인천>까지, 30년.

300만 인천시민과  
<굿모닝인천>의 '책연'은 계속 됩니다.

30·30·30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굿모닝인천> 창간 30주년 기념 이벤트

1994년 1월 호부터 2024년 1월 호까지, <굿모닝인천>을 30권 이상 소장하고 계신 시민 30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인천> 30권과 애독자님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 굿모닝인천



1994  
SINCE

## 시 민 과 함 께 한 책 연冊緣

책으로 이어지는 인연을 ‘책연冊緣’이라 합니다.  
<굿모닝인천>이 시민과 맺은 인연입니다.

시민과 시민을 잇고,  
시민과 시정을 잇고,  
시민과 희망을 잇는 징검다리 <굿모닝인천>

1994년 <내고장인천>에서부터,  
2024년 <굿모닝인천>까지, 30년.

300만 인천시민과  
<굿모닝인천>의 ‘책연’은 계속 됩니다.

30·30·30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굿모닝인천> 창간 30주년 기념 이벤트

1994년 1월 호부터 2024년 1월 호까지, <굿모닝인천>을 30권 이상 소장하고 계신 시민 30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인천> 30권과 애독자님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 굿모닝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1

‘인천 내향’이 보이는 자유공원에서 최남규 시민 가족(서구 가정로)



창간 30년 <굿모닝인천>이

시민 행복을 그립니다

##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원을 받는다고요?”

지난해 말 맘 카페를 비롯한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1억+i dream’ 정책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입니다.

※ 현재 지원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초·중교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우리 시는 천사지원금, 아이(i)꿈수당, 임신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관련 기사: 10~11면

<굿모닝인천>의 표지 모델이 되어주세요!

2024년 <굿모닝인천> 표지의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gmi2024@naver.com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인천 앞바다를  
지나던 길 위에서,  
역동적인 인천 갈매기

## 인천은 [ 르네상스 ] 다

인천은 개항장으로도 유명한 도시다. 근대화의 관문 역할을 하며 당대 열강 6개국의 영사 공관을 보유할 정도로 근대화의 첨병 도시였기에 인천은 개항장이라 불린다. 인천은 송도와 청라, 영종도와 같이 많은 간척지의 개발을 통해 옛 지형과 지도를 바뀌가며 육지에서 바다로 계속 영토를 넓혀 나갔다.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서울, 부산 다음으로 300만 도시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은 원도심 중심에서 점점 바깥으로 옮겨가며 구도시를 외면하고 바다만을 바라보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불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표출하고 말았다. 이제껏 무궁무진한 바다를 향해, 새로운 땅에 집을 지었다면 이제는 원도심을 되돌아보는 도시 재탄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시간이 되었다. 1883년 인천 개항이 외세의 힘에 의한 개항이었다면, 2024년은 주권을 가진 우리의 개항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제물포르네상스’ 역점 사업의 커다란 골격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세계 속의 도시 인천! 개항장의 영광을 다시 찾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물포르네상스’의 2024년은 역동적인 원도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사진 속 역동하는 인천 갈매기처럼….



글 사진  
김노천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소장

### JANUARY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1



굿모닝인천 웹진    오디오북 듣기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4년 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주간** 유준호(공보담당관)  
**편집장** 임성훈  
**편집 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임학현·최준근·유승현  
**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04	<b>인천 미소</b> 2024년에도 <굿모닝인천> 외	38	<b>굿인이 만난 사람</b> 인천광역시 명장, 최창진
05	<b>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b> 디자이너, 콘텐츠에 눈을 뜨다	40	<b>시민의 시선</b> 새해 풍경
06	<b>신년 인사</b>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	42	<b>이미지 뉴스</b> 다시 서안부대로! 인천 100조 시대
08	<b>제물포르네상스</b> 제물포, 인천의 중심지로 회귀	44	<b>시정 뉴스</b> 2024년 인천시 재난 안전 정책, 시민 체감형으로 추진 외
10	<b>1억+ i dream</b> 18세까지 1억원, 인천형 출생 정책	48	<b>의정 뉴스</b> 오직 시민, 2023년 인천시의회 마무리
12	<b>2024 꿈과 미래</b> 인천시 홍보대사 신년 인사	50	<b>컬러링 인천</b> 제1호 국가도시공원
16	<b>인천에서 인천으로</b> 장봉도 ‘육쟁이 할머니’	52	<b>인포 박스</b> ‘요금과 함께 만족도 올리겠습니다’ 외
20	<b>윙표</b> 겨울, 장봉도	54	<b>땅 이름 이야기</b> 인천(仁川)
24	<b>사람+사람=?!</b> 민화의 비상 <sup>飛上</sup>	56	<b>&lt;굿모닝인천&gt; 30주년 특집</b> 서른, 인천 더 아름다운 날들
28	<b>예산 인포그래픽</b> 2024년도 예산, 15조 368억 원	58	<b>시민 행복 메시지</b> 칼럼 <굿모닝인천>30년,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30	<b>새해 달라지는 인천</b> 시민을 위해 준비한 신설 정책	59	<b>인천사진관</b> 청라에서, 구본용 시민 가족
34	<b>요즘, 인천</b> 한국 최초·최고 인스파이어 아레나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http://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 애인을 위한 전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032-440-8306



#### <굿모닝인천>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굿모닝인천> 창간 3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 시는 그 어느해보다 역동적인 새해를 맞았습니다. <굿모닝인천> 1월호는 우리 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다둥이 가족의 모습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또 올해 본격 추진되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미래를 가능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의미있는 출발에 부응, 우리 시 홍보대사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호에선 특히 ‘인천에서 인천으로’, ‘사람+사람=?!’, ‘요즘 인천’ 등 새로운 기획 연재물을 선보입니다. ‘인천에서 인천으로’에선 목직한 올림을 주는 장봉도 육쟁이 할머니의 삶이 소개됩니다. ‘사람+사람=?!’에선 새해 벽두, 화폭 가득히 소망을 그려내는 민화작가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영종도에 최근 개장한 국내 첫 아레나 공연장은 ‘요즘, 인천’을 통해 소개됩니다. 인천광역시 14번째 명장은 제2의 고향 인천과의 진한 인연을 들려줍니다.  
희망찬 새해, <굿모닝인천>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2024년에도 언제나 <굿모닝인천>

지난 한 해도 <굿모닝인천>에 담긴 진솔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덕에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 곁을 지키며 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2024년 역시 동네 구석구석 숨은 다양한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왕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이영애 서구 청라한대로

인천의 눈부신 미래를 책 속에

<굿모닝인천>을 통해 늘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책과 시정, 문화, 생활 등은 물론이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질 <굿모닝인천> 역시 기대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질 대한민국 대표 도시 인천의 눈부신 미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종원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인천의 숨겨진 보물을 세상 밖으로

지난해 11월호 인천 오감 레시피에 실린 장독집 ‘장육쌈’ 편이 인상 깊었습니다. 몰랐던 인천의 고유한 먹거리에 대해 알게 되어 신선했고, 꼭 한 번은 그 아삭하면서도 담백한 식감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시작된 2024년에도 인천의 숨겨진 보물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유찬 미추홀구 경인남길

2024년도 시민과 함께해요

시민 그리고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굿모닝인천>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참여 코너가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포 박스’ 코너에 게재하거나 별도 페이지로 구성해 홍보한다면 더 많은 시민과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할 <굿모닝인천> 파이팅!

추지영 계양구 경명대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디자이너,  
콘텐츠에 눈을 뜨다

글 윤혜린 독자(부평구 열우물로)

마니아(Mania).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입니다. 뜻 그대로라면 저는 마니아가 맞습니다. 디자인 마니아 그리고 <굿모닝인천> 마니아. 제 직업은 올해로 경력 7년 차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편집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 <굿모닝인천>과 같은 책자를 디자인하는 직업입니다. 요즘은 웹이나 온라인 관련 디자인이 대세라지만,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는, 특유의 종이 냄새를 머금은 책이 좋아 편집 디자인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집 디자인의 기본은 자료 조사입니다. <굿모닝인천>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천을 비롯해 다양한 도시의 홍보물을 조사하던 중 <굿모닝인천>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깊이 있는 콘텐츠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고 자란 인천이지만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 하루 24시간을 지내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날의 가장 특별하고 다채로운 인천의 모습들이 <굿모닝인천>을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굿모닝인천>을 통해 책을 ‘보는’ 디자이너에서 책을 ‘읽는’ 디자이너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편집 디자이너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굿모닝인천> 마니아가 더 많이 생겨나길 응원합니다.

<굿모닝인천> 마니아를 기다립니다!

매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코너에 소개될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추억, 고마움 등 어떠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위대한 인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4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유정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시민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뜻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은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견(見), 문(聞), 연(連), 행(行)이라는 네 글자로 올해 시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뜻 그대로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귀를 열어 시민과 소통하고, 마음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시정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쉽 없이 현장을 찾은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민생 현장, 정책 현장, 산업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걷고, 뛰겠습니다.

둘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인천시의 핵심 시정 가치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아 더 나은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인천이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재외동포청을 기반으로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 인천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을 국제적 기념행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통해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과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균형 발전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항 개항이 첫 번째 개항이었다면, 인천국제공항 개항은 제2의 개항일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제3의 인천 개항’을 선포합니다. 제3의 개항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반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도시 전략을 통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인천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민이 편안한 부인안민(富仁安民)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 저와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인천시장이라는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인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멋진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전문 보기

## 진정한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인천을 완성합니다



2024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석

허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끊임없이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상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도전과 성취,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롭고 활기차게 인천이 당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 역동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동인천역 주변 개발 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외동포 거점 도시로의 인천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 발굴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해 더 연구하고 더 발로 뛰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년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의정 아카데미 역시 지속적으로 열어 열린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인턴십 제도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연구 단체를 17개에서 24개로 확대 구성하여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조례 입법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정기적인 의회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차질 없는 회기 운영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12개 우호 도시와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세계 각국 의회와의 교류 협정을 통해 폭넓은 글로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원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국 최고의 광역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푸른 용의 기운처럼 행운과 번영이 가득한 갑진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전문 보기



‘제물포’는 인천 내항을 포함한 중·동구 원도심 일대를 통칭한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근대 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제물포는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양산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제물포는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신도시와 비교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인프라는 원도심의 공동화와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됐다. 이런 제물포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명은 ‘제물포르네상스’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제물포, 인천의 중심지로 회귀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1단계(상상플랫폼, 제물포웨이브, 홀로포트 인 월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2030년까지 2단계(복합 문화 시설 큐브, 정주 환경 개선 등), 2040년까지 3단계(마리나 인 시티, 산업혁신 벨리, 산업 경과 개선 등)로 나눠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14일  
일부 개방한 인천 내항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1 — 원도심 르네상스** 혁신적인 정주 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게 모토다. 우선 철도, 도로, 신 교통 계획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제물포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인천역을 행정·교통·재생의 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주거 지원 계획을 통해 시민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거점 사업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2 — 문화·관광 르네상스** 제물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립이 주요 사업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제물포웨이브(wav), 홀로포트인 월미 등 제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특히 중구 자유공원에 250m 높이의 고층 전망대인 ‘오쿨러스 타워’를 세우고 인천 내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 시설인 큐브(k-ube) 등 앵커시설을 조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 — 산업·경제 르네상스** 지역 특화 산업인 소재·부품·장비 등 뿌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업 지역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바이오·도심항공교통(UAM)·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도·영종·청라와 연계해 첨단 산업 지원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4 — 내항 개발 르네상스**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해 내항을 수변 문화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체 재개발 콘셉트를 구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항만 기능 조정, 사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1단계 사업인 1·8부두를 신속히 착공함과 동시에 2단계인 2·3·6부두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첫날에 태어난 호람(태명)이는 복덩이다. 엄마-아빠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선물 보따리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호람이처럼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18세까지 1억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 시가 마련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1억+ i dream)’의 첫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호람이 또래는 ‘아이 드림 세대’로 불릴지 모를 일이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인천발 출생 정책

# 1억+ i dream 대한민국을 흔들다

### ●● 1억+ i dream’은?

‘1억+ 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우리 시는 천사(1,040만 원)지원금, 아이(i)꿈수당, 임신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천사(1,040만 원)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꿈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태아의 안전과 임신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i dream’ 사업,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기로 했다.

### ●● ‘1억+ i dream’, 베이비붐의 기폭제 될까

국가 재량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돈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3분기 현재 0.7명에 불과하다.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최하위 출산율이다.

이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우리 시가 ‘1억+ i dream’이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마련한 이유다.

우리 시는 정부에 ▲출생 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출생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 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선제적으로 출생 정책을 마련한 우리 시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1억+ i dream’ 발표 후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1억+ i dream’이 인구 절벽을 넘을 첫 사다리로서, 획기적인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1억+ i dream에 대한 말·말·말

66

인천 거주 김○○님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8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 기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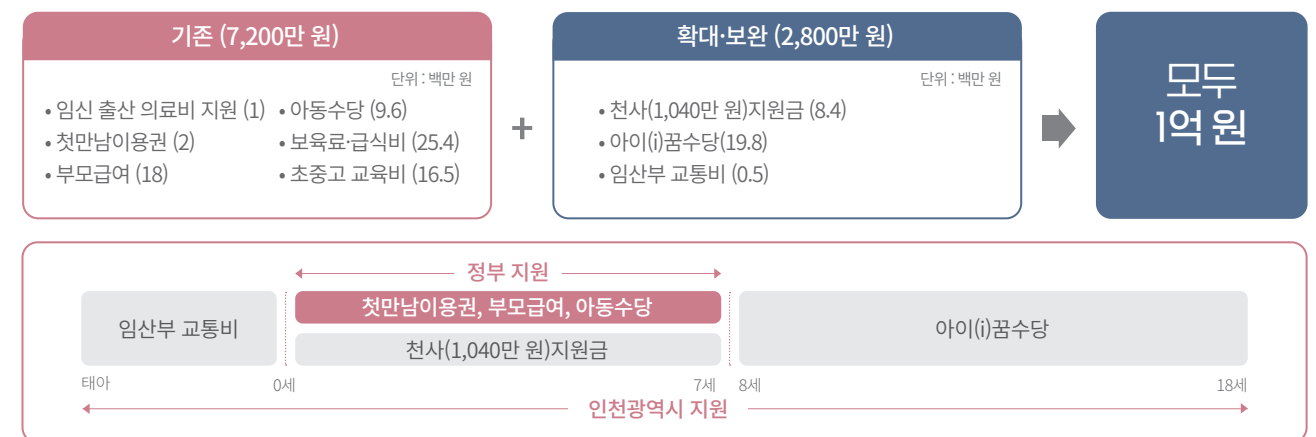
### 인천 지역 맘카페 회원들

요즘 국가 소멸 위기라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으로 출생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어요?

저는 임신부 지원도 특별히 못 받고 아이를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나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너무 좋죠!

99

###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i dream’



※ 천사(1,040만 원)지원금과 아이(i)꿈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시행  
 ※ 천사지원금 총 1,04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포함), 2023년생부터 1세~7세, 연 120만 원  
 ※ 아이(i)꿈수당 총 1,980만 원, 8세~18세, 연 180만 원(월 15만 원), 단계적 증액  
 ※ 임신부 교통비 1회 50만 원, 임신부 주유비, 주차비, 택시 요금 등

## 더 힘차게

##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2024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000만 인천의 꿈도 새롭게 깨어납니다. 뜨겁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푸른 용’처럼, 더 높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인천시 홍보대사 10인이 인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인천’, ‘우리는 애인愛仁’. 함께 만들어갈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랑합니다! ‘하트’!

권혁수 | 배우·방송인

어떤 삶이든,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처럼 소중한 추억이 있다. 권혁수에게는 인천에서 보낸 시간이 그렇다.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애 빛나는 시절을 보냈다. 방송인으로 데뷔한 후에도 줄곧 인천에 머물렀다. 자그마치 30여 년이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깊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을 오랜 시간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관광,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이 자랑스러워요. 내 고향 인천의 홍보대사가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애인愛仁 권혁수가 애정을 듬뿍 담아 인천 시민에게 인사를 전한다. “새해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방송인이자 배우로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에서도 만나는 반가운 얼굴. ‘고향사랑기부제’, ‘2025 APEC 인천 유치’ 홍보 영상 등에 출연해 인천을 빛내고 있다.



### 인천의 딸에게로 ‘시선 고정’!

이은지 | 개그맨

용현동보다 ‘토지금고 마을’이란 이름이 더 정겨운 동네. 요즘 대세 코미디언 ‘X-언니’ 이은지의 고향이다. 택시 기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 길 위를 달렸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데려다준 강화도 여행길, 열다섯에 댄스 스포츠의 현란한 몸짓에 빠져들던 기억. 그 빛나는 시간이 인천 곳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나와 가족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만큼 인천을 사랑합니다. 바다가 펼쳐진 강화도와 월미도, 을왕리, 근대사를 품은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 등 다채로운 도시의 매력을 알고 싶어요. 분명,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을 거예요.” 햇살이 퍼지듯 주위를 환히 밝히고, 스스로 ‘인천의 딸’이라 이르는 그 또한 인천의 매력이고 자랑이다.

2014년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해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꼭 채웠다. 2023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 수상. 방송에서 활약하며 인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 ‘와’,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

이정현 | 배우·가수

‘와’~. 이정현이 처음 가수로 무대에 섰을 때, 작은 몸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1996년 데뷔해 긴 시간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사랑받아왔다. 소녀 같은 순수함으로 반짝일 때도 삶의 무게를 끌어안는 순간에도, 그는 아름다웠다.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다정한 의사 남편, 예쁜 딸아이와 오순도순 살아가는 오늘. 가족의 삶에 인천이 자리 잡게 됐다. 지난봄, 인천시청 앞에 남편의 병원이 동지를 튼 것.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도시 인천은 알수록 머물수록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돼요. 새해에도 인천 안에서 행복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도할게요.” 그의 말간 얼굴 위로 겨울 햇살이 ‘꽃잎’처럼 떨어진다.

1996년 영화 ‘꽃잎’으로 데뷔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015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후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다.



### 웃음 속, 살아가는 기쁨

송필근 | 필근아 소극장팀·개그맨

할아버지 대부터 살아온, 내 몸처럼 소중하고 당연한 인천. 결혼하고 신혼의 단꿈도 인천에서 꾸었다. 일터는 인천 밖에 있지만, 노을 따라 서쪽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정겹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움츠러들 때, 그는 투병 생활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몸이 아프면서 건강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통감했어요. 일도, 돈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꼭 챙기세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딱 10배 더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웃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병마와 싸워 이겨내며 그는 깨달았다. 송필근은 최근 코너 ‘킹받쥬’로 ‘개그콘서트’에 복귀했다. 이제, 인천 시민이 고마운 그를 응원하며 홍보대사가 되어줄 차례다.

KBS 공채 27기 개그맨.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동료 개그맨 홍현호, 윤승현, 이정인과 인천 최초 코미디 전용관 ‘필근아 소극장’을 꾸려가고 있다. 수많은 홍보 영상과 행사에 참여해 인천을 빛내고 있다.



### ‘우리는, 인천’ 함께 응원해요!

배수현 | 치어리더

발 딛는 곳마다 추억이 사각사각 밟힌다. 중구 신흥동 골목에 들어서면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월미도 바닷가를 거닐면 벽화를 그리던 아버지가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1세대 치어리더 배수현. 인천 연고 프로야구단에 21년간 몸담으며 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건 어쩌면 운명이다. 열렬한 야구팬이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천종합운동장을 찾던 시절부터 이미 정해졌을지 모른다. “나의 도시, 인천을 홍보하게 돼서 기뻐요. 인천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인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인천 시민과 야구팬 여러분, 푸른 용이 비상하듯 활기찬 미래를 맞이하세요.” 20여 년, 구도球場 인천의 뜨거운 현장에 그가 있었다. 함께 부둥켜안고 울고 웃던 시간 ‘우리는, 인천’, 우리는 하나였다.

대한민국의 1세대 치어리더로, 인천 연고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와 ‘SSG 랜더스’를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 국제 보디빌딩 연맹 프로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네 번째다.







## 인천에서 살아오고 살아갈 날

김원훈 | 개그맨·배우

인천은 어제이자 오늘이고 내일이다. 김원훈은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천 안에서 꿈을 키워왔다.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린 유튜브 코미디 채널 ‘숯박스’가 대박을 터트렸다. 구독자 수가 무려 279만 명으로 300만 돌파가 머지않았다. 하나,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서 고향을 떠날 이유는 없다. “서울로 이사 갈 뻔도 했지만 결국 남았어요. 왠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제도시’, 그가 인천을 지칭하는 말이다. 누구에게든 세계에서 찾고 머물고 싶은 도시라고 당당히 소개한다. “인천시 홍보대사로서, 또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새해에도 300만 시민의 가슴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SNL코리아, 라디오스타 등 많은 방송에서 웃음을 안겼다. 그의 유튜브 코미디 채널엔 279만 명 구독자가 폭 빠져 있다. 각종 홍보 영상과 행사에서 인천을 위해 달렸다.

## 새날, 행복하게 ‘미소 지어요’

김미소 | 가수

스무 살이 되기까지 인천은 낯선 도시였다. 일자리를 찾아 남동구 만수동으로 왔지만, 그저 해가 지면 서둘러 떠나야 할 일터일 뿐이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계양구 계산동에 자리 잡았다. 어느덧 38년이 흘렀다. 이제, 인천은 몸과 마음이 머무르는 ‘집’이다. 트로트 가수 김미소, 그는 인천의 풍경 속을 걷고, 사람을 만나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 “우리 동네는 작지만, 산과 바다가 가까이 있고, 도심처럼 복잡하지 않고 여유로워서 살기 좋아요. 지치고 힘든 때면 기대는 엄마 품처럼 따스합니다. 고향 같은 인천을 홍보하게 돼 고맙고 기뻐요.” 새날이 밝았다. 300만 인천 시민이 행복하게 ‘미소’ 짓길 바라며 그가 인사를 전한다.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언젠가 귀한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푸른 용처럼 높이 날아오르세요.” 내일에 대한 기대로, 미소가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난다.

2017년 가수로 데뷔해 ‘깜빡 세월만’, ‘미소 지어요’ 등의 곡을 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인천자활한마당 공연, 개항장 미니 야행 무대 등을 화려하게 밝혔다.



## 더 빛날, 인생 후반전

이동국 | 전 축구선수

1882년 제물포 부두에 공이 솟아오르는 순간, 한국 축구의 역사는 시작됐다. ‘라이언킹’ 이동국. 23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K리그의 전설이 됐다. 그는 K리그 최초이자 유일하게 ‘70-70클럽’에 가입한 선수다. 인천에 뿌리내린 지는 10년이 됐다. 재시, 재아, 설아, 수아, 시안 다섯 자녀를 위해 교육 환경이 좋고 미래 비전이 있는 송도국제도시로 왔다. 2년간 인천시 홍보대사로 활발히 움직였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던 때였다. “힘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둠이 걷히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천 시민의 앞날이 더 찬란히 빛나길 바랍니다.” 그는 오늘 축구 교실의 대표이자 축구 해설 위원, 방송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천 안에서 더 빛날 그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한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인천시 홍보대사로서 코로나19와 아동 학대 예방, 청년의 날과 인천 시민의 날 홍보 등 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 왔다.

## 땀으로 꿈을 완성하다

김광현 | 야구선수

구도球都 인천. ‘우리는, 인천’을 향한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구장, 푸른 그라운드 한가운데 그가 있다. 김광현의 야구 인생은 인천이 그 중심이다. 2007년 ‘SK와이번스’ 시절부터 오늘 ‘SSG랜더스’에 이르기까지 인천을 가슴에 품고 뛰었다. 굳은살 박인 손에 5개의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는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 내일도 인천 안에서 도전하고 나아가고 이뤄내리라.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는 도시.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섬과 바다, 새 땅을 품은 ‘창조형 도시’, 인천의 얼굴이 되어 자부심이 큼니다. 한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인천 시민 여러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내일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그는 ‘세계초일류도시’의 꿈을 아름다운 땀으로 완성하고 있다.

인천 연고 프로 야구단 ‘SSG랜더스’ 선수로, 한국시리즈 우승 5관왕이자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의 금메달리스트. 어린이날 축하 영상 등으로 시민을 찾았다.



## 인천을 품고, 세상에 알리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치어리더 배수현, 개그맨 이은지, 배우 이정현 등 3명을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야구선수 김광현, 배우 권혁수, 개그맨 김원훈, 가수 김수찬과 김미소, 시민 홍보대사 이문형 등 6명이 시 홍보대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인천의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 영상과 ‘청년의 날’, ‘자살 예방의 날’, ‘인천자활 한마당’, ‘식품 안전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현장을 중흥무진 누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유명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쁘다”라며, “인천의 새로운 얼굴로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12팀 17명이 인천을 널리 알리고 있다.

## ‘청룡의 기운’으로 날다

김수찬 | 가수

“인천은 가수 김수찬,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인천과 인연이 깊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천청소년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꿈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인천은 언제나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자, 또 다른 자아다. 태어난 인천을 떠나 살다 중학생이 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하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에 구김없이 밝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인천에서 눈뜨는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졌다. 가슴에 희망이 솟아났다. “갑진년甲辰年은 ‘푸른 용의 해’이지요. 제 태몽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이랍니다. 그 기운을 모아 인천 시민께 전해 드릴게요. 만사형통! 일사천리! 열린 세상으로 거침없이 훨훨 날아오를 겁니다.”

2012년 가수로 데뷔해 1집 ‘공존’을 발매. 인천청소년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미스터롯’ 10위까지 올랐다. 오직 인천, 토크 콘서트, 청년의 날 행사 등의 무대에 서고,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 홍보 영상을 빛냈다.





고 통 도  
행 복 이 다 ,  
살 아 있 기 에

장봉도 바닷가 해식 동굴에서, 장봉도의 ‘육쟁이 할머니’ 공정업.  
살아있기에 살아야 하므로, 그는 오늘도 미지의 세계로 길을 떠난다.



취재 영상 보기



살아  
있기에,  
살아야  
한다.

인천은 깊다. 최초, 최고가 공존한다. 그 역사는 인천 사람들이 살아낸 시간이기도 하다. 인천 곳곳에 깃든 저마다의 삶과 기억, 숨은 이야기를 찾아 기록한다. ‘인천에서 인천으로’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인천의 삶,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장봉도의 ‘육쟁이 할머니’ 공정업 어르신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사람인 줄 알았다. 남편과 딸을 가슴에 품고 세계 30여 나라 오지에 발자국을 찍은 뒤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삶은 빛난다는 것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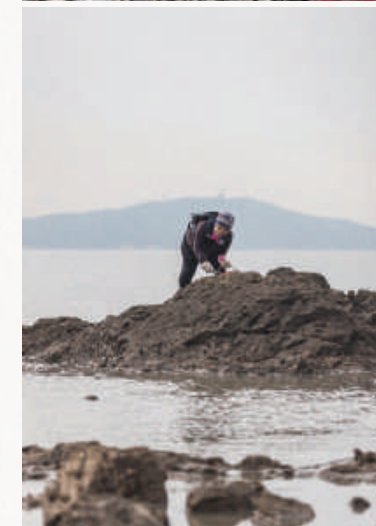
일흔넷,  
안나푸르나에  
오르다

“내가 우리나라 재벌 ❷이건희보다 더 부자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Annapurna에 올랐으니까.” 한겨울의 장봉도 바닷가, 매서운 바람 모서리에서 진한 짚내가 묻어난다. 공정업 할머니는 2주 후면 이 섬을 떠난다. 미지의 북아프리카 대륙으로 가 금빛 일렁이는 사하라 사막 위를 거닐 것이다.

그의 나이 일흔넷,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홀로 30여 나라에 발자국을 남긴 그다. 여행이 아닌 고행길이었다.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세상의 중심에서 뚝 떨어진 오지로 주저 없이 걸어 들어갔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안나푸르나 정상에도 올랐다. 육체가 아닌 영혼이 이끄는 대로, 열흘을 걷고 걷은 끝에 높고 푸른 네팔 하늘 가까이에 닿았다.

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오로지 ‘노 잉글리시’, 여행 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대신한다. “기가 막히지? 나 같은 사람이 세계를 혼자 다니고. 하지만 이래 봐도 내가 ‘글로벌 페이스’라 어디서든 통해.” 검게 그을린 주름투성이 얼굴에 하얗게 빛나는 안나푸르나가 겹쳐 지난다. 그는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고,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바다는 생명 줄이다.  
바다가 있기에,  
그도 오늘 여기 있다.



그가 사는 세상은 아프도록 남루했다. 젊은 시절, 먹고살기 위해 고향인 전남 고흥을 떠나 소래포구로 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달려 검은 바다에 다다랐다. 새벽빛이 밝아오기 전부터 부둣가로 나가 해가 땅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생선을 팔았다. 몸에 비릿한 바다 냄새가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은 일하지 않았다. 생선 비린내 배인 돈을 흥청망청 쓰며 매일을 술로 지냈다. 기어이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두 자식만 아니면 더는 살고 싶지 않았다. 하나,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달려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내야 했다. 어느 날 남편이 “장봉도에서 지주식支株式 김 양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라고 말했다. ‘섬으로 들어가 버리면, 남편이 지긋지긋한 술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30여 년 전, 부부는 여덟 살, 열 살 난 아들딸 손을 붙잡고 바다를 건너 섬으로 흘러들어왔다.





1



2



3

## 사랑하는 존재와 시간의 상실

- 1 — 부모는 결코 자식을 가슴에서 지울 수 없다. ‘이제는 딸 잃은 아픔을 지웠다’ 말하면서도,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 2 — 바다 너머 바다, 그 어딘가에 딸이 있을 것만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해간다.
- 3 — 할머니의 식당 벽을 채운 여행의 시간. 고행길 같은 여행에서 행복을 만났다.

• 섬에서도 살아가는 일은 여전히 고단했다. 김 양식을 하겠다던 남편은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렀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에도. 아내는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퉁퉁 부은 눈을 떠서 보면 이불에 눈물 자국이 아프게 새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살아야만 했다. 어느덧 자식들이 집을 떠나 육지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다. 남부럽지 않게는 못 키워도 공부는 가르쳐야 했다. 갯벌에 뒤엉켜 억척스럽게 삶을 일궈냈다.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지주를 세우고 밭을 던지고 김을 땀다. 모진 바람과 시린 물살을 견뎌낼수록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 “바다는 내 생명줄이야.” 바다가 있기에, 그도 오늘 여기 있다.

• 남편이 죽었다. 그날도 고된 노동으로 무거워진 몸을 간신히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섬에서 새사람 만들어 언젠가는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려고 했는데… 먼저 가버렸어. 결국 술도 영영 못 끊고 죽어버렸어.” 살아 있을 때는 차라리 죽기를 바랐다. 그래서 가슴이 더 사무치게 아팠다. “고운 정보다 미운 정이 더 무서운 거야. 끊어 내기가 힘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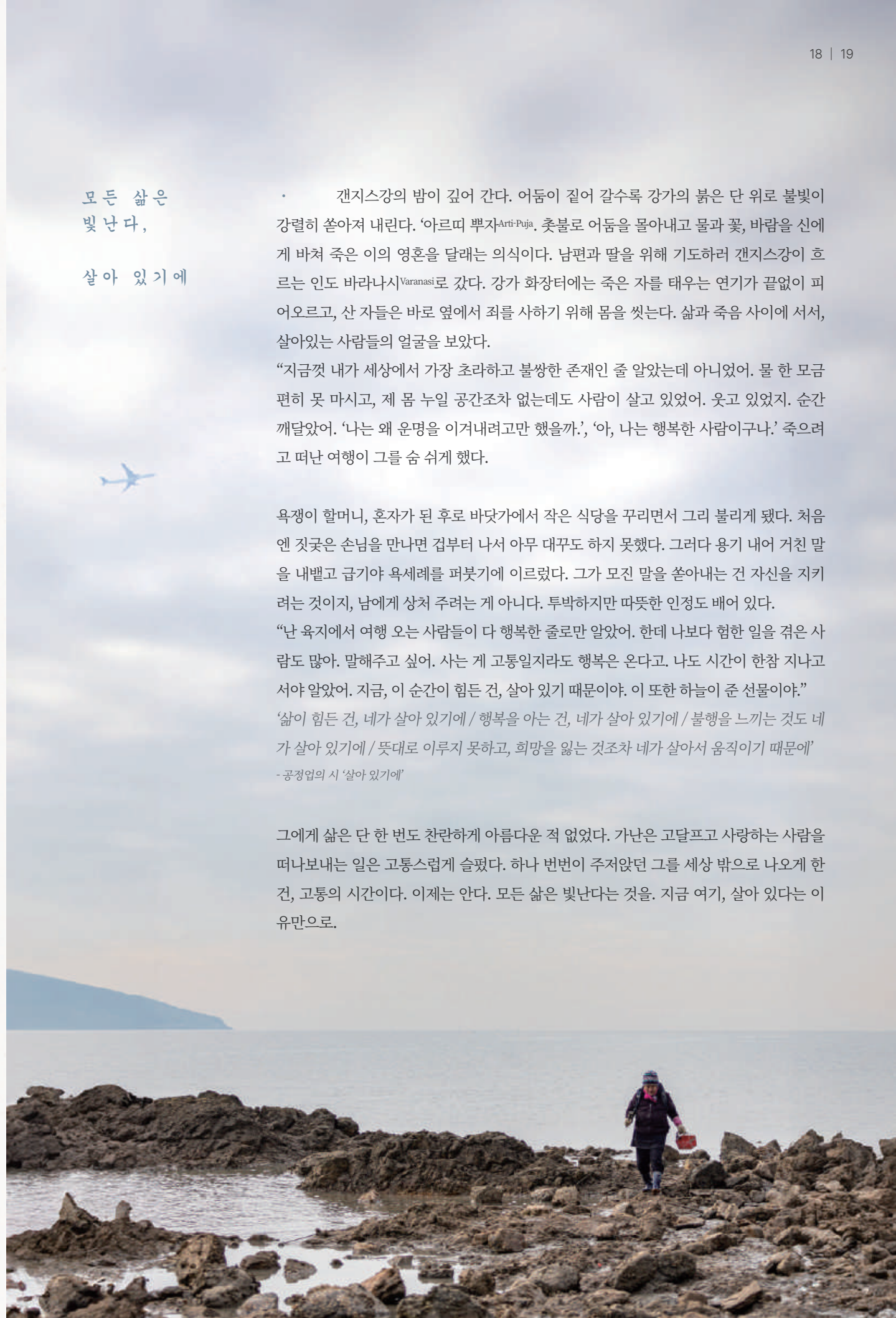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히는 건 아니다. 그리움이 더 해갈 뿐이다. 가까스로 살아내고 있는데, 남편이 떠나고 10년 후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집어삼켰다. 눈 뜨고 일어나는 매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실감이 그 또한 소멸시켜 버렸다.

‘죽어야겠다.’ 세상 전부를 잃으니 한갓 인생살이쯤은 두렵지 않았다. 먼 길을 나섰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자신을 덩그러니 떨어트려 놓고 스스로를 괴롭혔다. 세상에서 점점 사그라들다 마침내 사라져 버리기 위해.

가난해도 웃는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죽으려고 떠난 여행이, 그를 숨 쉬게 했다.

## 모든 삶은 빛난다,

## 살아 있기에



• 갠지스강의 밤이 깊어 간다. 어둠이 짙어 갈수록 강가의 붉은 단 위로 불빛이 강렬히 쏟아져 내린다. ‘아르티 뿌자’<sup>Arti-Puja</sup>. 촛불로 어둠을 몰아내고 물과 꽃, 바람을 신에게 바쳐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이다. 남편과 딸을 위해 기도하러 갠지스강이 흐르는 인도 바라나시<sup>Varanasi</sup>로 갔다. 강가 화장터에는 죽은 자를 태우는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르고, 산 자들은 바로 옆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 몸을 씻는다.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지금껏 내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물 한 모금 편히 못 마시고, 제 몸 누일 공간조차 없는데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 웃고 있었지. 순간 깨달았어. ‘나는 왜 운명을 이겨내려고만 했을까.’,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죽으려고 떠난 여행이 그를 숨 쉬게 했다.

욕쟁이 할머니, 혼자가 된 후로 바닷가에서 작은 식당을 꾸리면서 그리 불리게 됐다. 처음엔 짓곳은 손님을 만나면 겁부터 나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용기 내어 거친 말을 내뱉고 급기야 욕세례를 퍼붓기에 이르렀다. 그가 모진 말을 쏟아내는 건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지, 남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인정도 배어 있다.

“난 육지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줄로만 알았어. 한테 나보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도 많아. 말해주고 싶어. 사는 게 고통일지라도 행복은 온다고. 나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서야 알았어. 지금, 이 순간이 힘든 건, 살아 있기 때문이야. 이 또한 하늘이 준 선물이야.”

‘삶이 힘든 건, 네가 살아 있기에 / 행복을 아는 건, 네가 살아 있기에 / 불행을 느끼는 것도 네가 살아 있기에 /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희망을 잃는 것조차 네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정업의 시 ‘살아 있기에’

그에게 삶은 단 한 번도 찬란하게 아름다운 적 없었다. 가난은 고달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고통스럽게 슬펐다. 하나 번번이 주저앉던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건, 고통의 시간이다. 이제는 안다. 모든 삶은 빛난다는 것을. 지금 여기,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冬

겨울

섬

島

스며  
들다

겨울과  
겨울 사이,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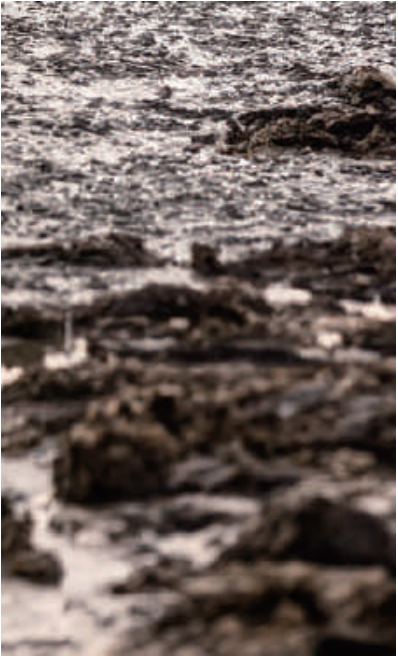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세상은 고요하다. 겨울과 겨울 사이, 장봉도. 넘실거리던 바다는 질펀한 갯벌을 드러낸 채 저 멀리 물러나 있었다. 아득히 보이는 수평선 사이로 도시의 소음이 가라앉는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다를 끌어안았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썰물 따라 밀려 나갔다. 바다는 겨울에서야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

겨  
울  
바  
다  
로  
가  
다

겨울 바닷가로 가는 건, 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버려야 하지만 쌓아만 두던 마음의 짐을 벗어낸다. 출다. 두 볼이 얼얼하다. 저 아름다운 바다 깊숙이 숨겨두었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다가 바람이 되고 파도가 되고 하늘이 된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낀다.

장  
봉  
도  
長  
峯  
島





겨울 바다에 살다

살다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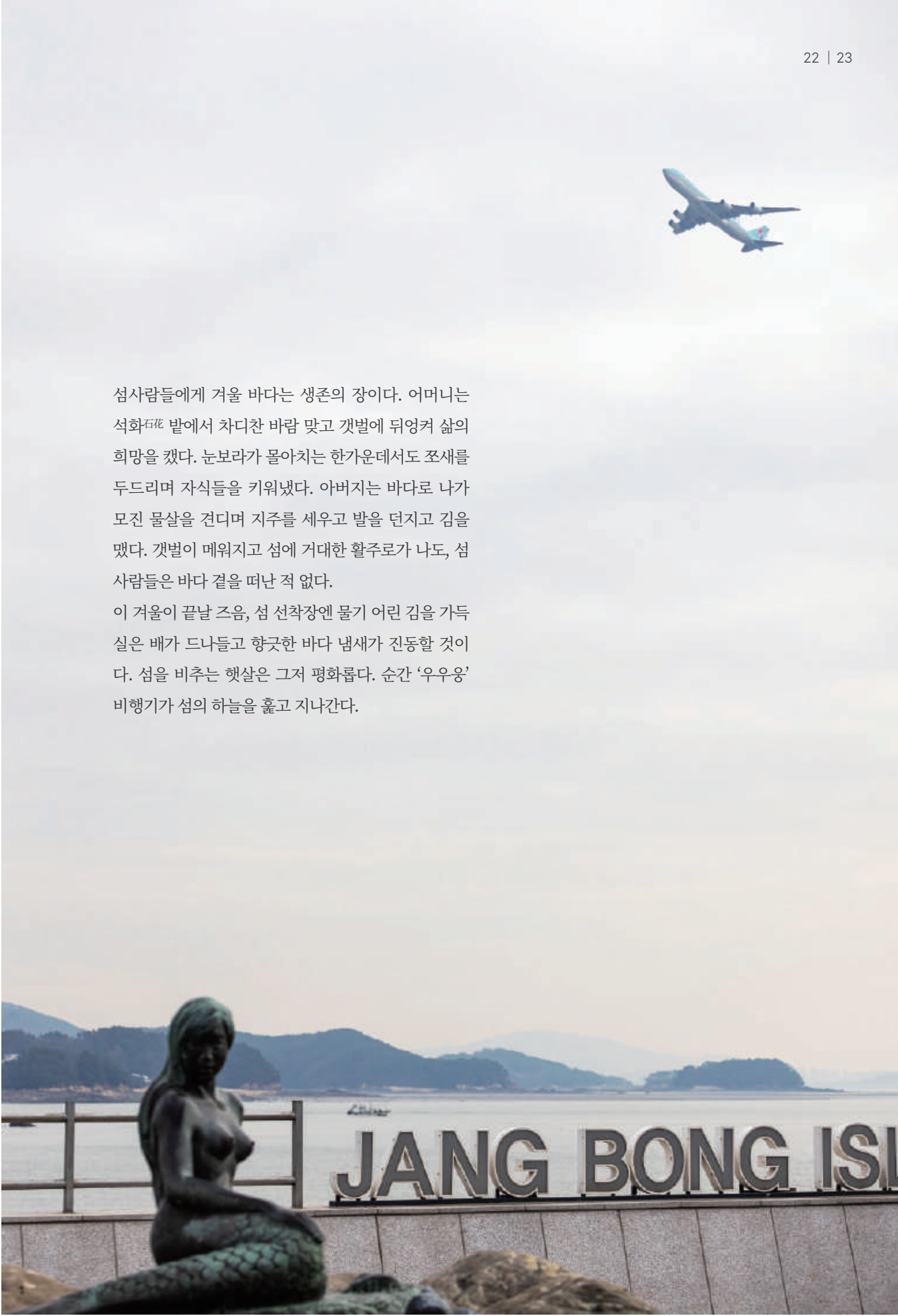


하늘에서 본 장봉도



작은 멀곳

‘내 나이 팔십, 육이오 때 피난 와, 삶을 꾸린 이곳 장봉도. 그때부터 굴을 쪄아서 삶을 시작했다. 가족의 삶을 쪄  
왔다. 또닥 또닥 또또닥. ‘아엠아프’ 때도 쪄왔다. 또닥 또닥 또또닥. 아이들에 시집 장가도 쪄왔다. 또닥 또닥  
또또닥. 이젠 손자 손녀의 학비도 쪄다. 또닥 또닥 또또닥. 저승 갈 때 쓸 나에 노자도 쪄다’  
- 장봉도 마을 벽화에 새겨진 주민 조숙자 씨의 시



장봉도 인어상





취재 영상 보기

## 민화의 비상<sup>飛上</sup>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옛 조상들은 정월 초가 되면 집 안에 소망을 담은 그림을 걸었다. 8폭 병풍을 만들어 곁에 두기도 했다. 용과 호랑이를 대문 양쪽에 나란히 붙인 ‘용호도’에선 액운을 막고 행운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운과 복이 간절한 새해, 화폭 가득히 상서로운 기운을 그려내는 민화 작가들을 만났다.



강효진민화연구소에서 만난 강효진 작가(좌)와 이민정 작가(우)

봄  
에서  
피어  
나는  
희망

•



십장생(불로장생), 화조도(사랑과 행복), 모란도(부귀영화), 책가도(학문)… 민화는 행복을 부르는 그림이다. 평범하지만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을 자유롭게 그려낸 시대의 회로애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상서로운 기운이 간절한 새해, 새삼스레 그 의미가 귀하게 다가온다.

**Q — 두 분의 용 그림에서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강효진** 큰 기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웃음). 여러분께도 ‘새해에 승천하는 용꿈꾸세요!’라고 첫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용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용은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일으키며 비, 천둥번개와 함께 장엄하게 비상하는 모습으로 그림과 설화에 자주 등장하죠.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 낸 동물이지만, ‘안 본 용은 그려도 본 뱀은 못 그린다’란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추앙받았습니다. 그 상징성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현대에도 많은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Q — 민화를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강효진** 민화의 태생에서 기인합니다. 조선 초 도화서 화원을 꿈꾸던 못사람(화공)들이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유롭게 화폭에 옮겼거든

요. 백성 누구나 즐기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과 독창성이 발달합니다. 궁중화는 섬세하지만, 숨씨 좋은 일반인들의 그림에서는 자유분방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오늘의 작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Q — 1,000년 전의 작품이 현대를 사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민정** 소망을 담은 그림이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이랄까요. 상서로운 물상을 글자와 그림으로 조화롭게 그려낸 예술성도 뛰어나고요.

**강효진** 민화는 꿈을 꾸게 해줍니다. 무병장수, 사랑과 행복, 다산, 입신양명 등 삶과 죽음 사이의 이상향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평범하지만 모두가 바라는, 꿈꾸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통과 미래  
통섭하다



전자기기에 도안을  
스케치하는 제자



결핍에서  
피어난  
꿈

민화를 향한 끝 모르는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세월,  
인천의 민화 화단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강효진의  
제자들이 화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현대 민화를  
풍성하게 꽃피우고 있다.  
전시와 협업도 다채로워졌다.  
그럼에도 그는 성과보다는  
결핍을 고민한다.

**Q — 최근 ‘K-아트’의 큰 인기를 민화가 그려  
내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강효진 민화가 K-아트의 대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2015년 ‘강효진민  
화연구소’의 문을 열고, 2018년 ‘인천민화협  
회’를 설립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  
다. 보다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후학 양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인 작품 활동뿐 아니라 교  
육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많은 작가  
들이 한국의 민화 화단을 이끌고 있기에 보람  
을 느낍니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인천은 서울과 가깝기 때  
문에 인천 출신의 작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인천만의 화단을 구축  
하고 발전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속에 ‘고민’과 ‘간절함’이 커지더  
군요. 인천만의 결핍을 극복하고 내공을 쌓은  
훌륭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인천의 작가들이  
시민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진심  
으로 바랍니다.

**Q — 두 분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강효진 인천민화협회를 시작할 때 부터 제 꿈  
은 변함없이 ‘인천민화학교’ 설립입니다. 10  
년 동안 노력하면 이뤄지리라 믿고 달려왔습니  
다. 프랑스에는 ‘에콜’이라고 다양한 분야의 예  
술학교가 많아요. 심도깊은 연구와 예술가들  
의 창작 환경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교육 기관  
이 필요해요. 지금 민화는 서울의 몇 개 특수대  
학원에만 학과가 개설돼 있어요. 인천에도 작  
가들의 배움터가 필요합니다. 인천에서 민화의  
새 길을 내고 싶습니다.  
이민정 인천에서 민화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우선이고요!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많  
아지길 바랍니다. 이 또한 민화의 대중화를 위  
해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작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민  
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끝으로 인생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건강과 나  
라의 평안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새  
해 맞이하세요!

•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90년대 초 ‘창작민화’라는  
화두가 등장하자 화단에서는  
전통을 대척한다는 오해가  
불거졌다. 그로부터 30여년,  
민화 공방 시절부터 현대  
민화의 씨앗을 뿌리고  
초석을 일군 작가들이  
있었기에 현대 민화 화단은  
화사한 봄날을 맞이했다.

**Q — 두 분의 작품이 궁금해집니다.**

강효진 제 그림의 뮤즈는 봉황입니다. 성군聖君  
이 출현하거나 세상이 태평성대일 때 나타나는  
봉황. 조선 왕조는 봉황(수컷을 봉凰, 암컷을  
황凰이라고 함)을 왕의 상징으로 삼고, 당대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볼 수 없는 상상 속 동물이지만, 저에게  
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굳은 소망이자 선조들  
이 간직해온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  
다. 창덕궁 부벽화付壁畵의 군봉도에서 처음 마  
주한 봉황은 고고한 자태를 한껏 뽐냈고, 화려  
함을 넘어 찬란했습니다. 이를 표현하고자 고민  
끝에 금분과 금니로 장식미를 더했어요. 제가 첫  
시도였죠. 2011년에 <조선왕조 봉황과 옥새>로  
조선민화박물관 전국민화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봉황 작가로 널리 알려졌어요.

이민정 저는 <서수낙원도>로 지난 2022년 등  
단했어요. 그림에 정진한 지 4년 만이었죠.  
지금은 <백수백복도>를 구상 중입니다. ‘수壽’  
자와 ‘복福’ 자를 여러 모양으로 도안하여 재구  
성해 조형미가 빛나는 작품입니다. 제 그림은  
누구나 만질 수 있는 입체적인 작품입니다. 민  
화의 대중화를 염두하며 저만의 세계를 고민하  
던 중, 어느날 전시장에서 그림을 만지려는 아  
이를 보고 작품의 방향을 결정하게 됐어요. 오  
감으로 감상할 수 있고, 저시력자도 좋은 기운  
을 감각할 수 있는 그림이죠. 전통 민화와 디지  
털 민화를 접목해 작업해요. 디지털 도안을 그  
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구현한 작품에 채색  
하는 방식입니다. 제 전시장에서는 마음껏 만지  
며 오감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Q — 서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강효진 “이민정은 나에게 ‘한국 민화의 미래’다.  
이 작가는 제자들 중에서 반향을 잘 하는 편에  
속합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  
죠. 이 작가가 입체적인 <백수백복도>를 기획  
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화의 미래를 보  
았거든요.  
이민정 “그림 뿐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다.” 화  
실이 저에게는 학업을 끝낸 후 처음으로 내딛은  
사회입니다. 지난 5년간 그림뿐 아니라 인격적  
으로도 스승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붓을 든 스승(좌).  
그의 작품 <조선왕조 봉황과 옥새>



이민정 작가의  
<백수백복도> 도안

**인천의 민화 작가와 고잔초등학교 아이들의  
용 그림전 '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龍'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월 31일 ~ 2월 8일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주최 인천교사민화연구회  
주관 인천민화협회 강효진민화연구



강효진(58) | 민화 작가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 전공. 프랑스  
에서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다 입국  
해 민화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1  
년 김삿갓문화제 전국민화공모전 대상  
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 지난  
2018년 인천민화협회를 설립, 인천에  
뿌리를 두고 민화의 지평을 넓힌 일등  
공신으로 프랑스 앙탕파당전, 민수회  
회원전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진행했  
다.



이민정(31) | 민화 작가

법학과 졸업 후 2018년 민화에 입문,  
4년 만에 제23회 조선민화박물관 전  
국민화공모전 장려상에 당당히 이  
름을 올렸다. 2023년 인천문화재단  
의 ‘청년동네탐구생활’ 청년 작가로  
선정, ‘손으로만 보세요’란 전시를 기  
획·진행.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대중  
의 예술이었던 민화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 시민과 동행하는 복지 일번지

## 2024년도 예산 한눈에 보기

새해, 인천의 살림살이가 정해졌다. 그 중심에는 늘 시민이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반복적·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과 인천을 위한 민생 사업에 투입한다. 마지막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인천은 2024년에도 차질 없는 공약 추진으로 시민 삶에 만족을 더한다.

2024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1,211억 원 증가한 15조 368억 원이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3.5% 포인트 감소한 46.8%다. 인천은 ‘약자 친화, 따뜻한 동행’, ‘시민 복지 일번지, 인천’,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2024년 총 예산  
15조 368억 원

### ① 약자 친화, 따뜻한 동행

3.07조



####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강화 2.08조

공동체의 일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고, 단계적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 0.33조

지역 경제의 근간인 관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농축산업계와 섬 주민 지원 0.40조

공익수당 신설 등 농가 안심 정책을 추진하고,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로 인한 수산업계의 우려 해소와 섬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 자긍심 높이는 일자리 창출 0.26조

어르신과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자리 지원을 가속화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 ② 시민 복지 일번지, 인천

5.38조

#### 연령별·유형별 가족 맞춤 지원 3.77조

출산부터 청년,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연령별은 물론이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공동체에 활력을 더한다.

#### 사람 중심 교통 체계 구축 0.77조

대중교통 체계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모두 배려하는 교통 안전 도시를 실현한다.



####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0.50조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문화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하고,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건강한 체육 도시를 구현한다. 또한, 인천이 지닌 168개의 보물인 섬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 활력 넘치는 시민의 삶 0.34조

스트레스와 감염병에 강한 건강 사회를 구현하고, 장애인과 아동,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마련한다.



※ 인천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작성한 자료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

6.59조

#### 도시 경쟁력 강화 3.12조

원도심 균형 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시설 지속 보강으로 인프라를 개선한다.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미래 도시 1.03조

300만 인천 시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 도시를 완성하고,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 정책 선도를 통해 1,000만 도시로 도약한다.

#### 경제자유구역 고도화 1.48조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과 교통망을 구축하고, 영종 주민 통행료 감면과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제고한다.

#### 재난 안전 도시 구현 0.96조

저류 시설 확충과 방조제 개보수를 통한 자연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 안전과 시민 안심 등 사회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방 공무원에 대한 보조 장비 교체, 사기 진작 등으로 신속한 대응을 실현한다.



# 2024년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

인천이 달라진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다.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머리를 맞댄 결과다. 아이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청년에게는 희망을 선물한다.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모든 시민에게는 삶의 만족을 선사할 계획이다. 2024년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 시민을 위한 수많은 변화 중 올해부터 신설되는 정책만을 모아 전한다.

## 01 | 영유아·아동 인천에서 행복한 성장을!

천사 같은 아이들이 행복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천사(1,040만 원)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1세~7세(2023년 1월 1일생부터 지급)
지원 내용	연 120만 원, 총 840만 원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문의	영유아정책과 ☎ 032-440-2952

### 아이(i)꿈수당 지급

지원 내용	2016년생 아동(아동수당 중지 아동)에게 월 5만 원 지급
시행 시기	2024년 4월 예정
문의	영유아정책과 ☎ 032-440-4905

###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지원

지원 내용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방문을 통한 영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행 시기	2024년 상반기
문의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4

### 어린이집 통학 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지원

지원 내용	영유아 몸에 맞는 3점식 좌석 안전띠 지원을 통해 영유아 교통 안전 피해 사전 예방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영유아정책과 ☎ 032-440-2898



인천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는 1월 중 각 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인천시 홈페이지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 02 | 여성·청소년 인천에서 든든한 일상을!

모든 임산부는 평등하기에, 모든 문화는 동등하기에 든든하게 살피겠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문의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2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다문화 가구의 7세 ~18세 자녀에게 연간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지원
지원 내용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 활동비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2월
문의	인구가족과 ☎ 032-440-2903

### 위기 공동이 보호 핫라인

지원 대상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
지원 내용	24시간 상담 운영, 위기 임산부 임시 보호, 시설·기관 연계와 맞춤형 복지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인구가족과 ☎ 032-440-2875



## 03 | 노인 인천에서 건강한 노후를!

인천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 대상	접종일 기준 인천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통증 ZERO 건강 채움! 취약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3월 예정
문의	감염병관리과 ☎ 032-440-7842

### 인천광역시립요양원 개원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중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성질환자에게 양질의 공공형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행 시기	2024년 3월
문의	노인정책과 ☎ 032-440-2816

## 04 | 소상공인·기업 인천에서 눈부신 성공을!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오늘보다 나은 희망찬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 경감, 원금 상환 유예 보증료(0.6%~1%)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42

### 중소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가칭) 개소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시행 시기	2024년 7월 예정
문의	산업정책과 ☎ 032-440-4253





## 05 | 장애인 인천에서 평등한 권리를!

장애가 불편부당이 되지 않는 세상, 인천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배움수당 월 10만 원 지급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4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안심 이동권 보장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4

###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

지원 내용	장애인 등록을 원하나 이동 제약이 있는 인천 시민에게 차량과 의료 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
시행 시기	2024년 2월
문의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6

### 최중증 발달 장애인 1:1 맞춤형 지원

지원 내용	주간 활동, 공동 생활 지원, 주택 융합 지원, 등 24시간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관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 인력을 지원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인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 인력 배치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바우처)
시행 시기	2024년 6월
문의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5

## 06 | 청년 인천에서 내일의 희망을!

좌절하지 않고 내일의 밝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이 함께하겠습니다.

### 군 복무 인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지원 내용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이 복무 중 상해, 사망, 질병 및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3월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2888

###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개소

지원 대상	인천 거주 청년 100명에게 실무 중심 직무 훈련(3개월)과 관내 기업 일 경험(3개월) 기회 제공
지원 내용	직무 훈련 수료 후 일 경험(인턴십) 참여 시 월 240만 원 지급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4177

###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인천 거주 청년 100명에게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 대학(4개 대학) 연계 연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100명 중 우수 장학생 16명 선발, 외국 대학 본교(미국, 벨기에 등) 견학 특전 제공(7~10일간)
시행 시기	2024년 3월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4177

## 07 | 시민 누구나 인천에서 커다란 만족을!

일상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시간이 만족이 되는 시민의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지원 내용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정 비율 환급, 1인당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 환급
시행 시기	2024년 7월 예정
문의	교통정책과 ☎ 032-440-3887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6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
시행 시기	2024년 2월 예정
문의	농축산과 ☎ 032-440-4362

### 폐기 의약품 관리 사업 시행

사업 내용	폐기 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관공서(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와 약국 등에서 운영 시간 내 손쉽게 배출 가능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2734

###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대여

사업 내용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각 군·구별 3대 비치, 지역 행사 시 대여
시행 시기	2024년 하반기
문의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3254

### 도시민 기술 교육(인천귀어학교) 지원

지원 대상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 기술 교육 지원
교육 내용	5주간 해양 수산 핵심 정책과 맞춤형 실습 교육 제공
시행 시기	2024년 3월
문의	수산자원연구소 ☎ 032-440-7462

###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와 맞춤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자조 모임, 생활 습관 개선 사업 등 제공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복지서비스과 ☎ 032-440-1552

###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

사업 내용	인천 방문·거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개소
시행 시기	2024년 6월 예정
문의	재외동포웰컴센터 기획과 ☎ 032-440-1534

### 공영 주차장 조성 확충

사업 내용	원도심 25개소, 2,361면 조성확충
시행 시기	2024년
문의	교통안전과 ☎ 032-440-3922

### 드론 영상 대시민 서비스 개시

사업 내용	2019년부터 인천시가 직접 촬영한 개항장 일원 등 178개소 고해상도 드론 영상 공개
시행 시기	2024년 1월
문의	토지정보과 ☎ 032-440-4587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사업 내용	수도권 최초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 개관, 국내 해양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시·교육·체험 기회 제공
시행 시기	2024년 하반기
문의	섬해양정책과 ☎ 032-440-4822

### 함박마을문화축제 개최

사업 내용	인천시 최대 고려인 집단 주거지인 함박마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문화 축제 개최
시행 시기	2024년 상반기
문의	예술정책과 ☎ 032-440-4488

### 움직이는 갤러리 운영

사업 내용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 펼치는 다양한 미술 작품 전시를 통해 문화 향유 대상 확대와 예술가 전시 기회 제공
시행 시기	2024년 상반기
문의	예술정책과 ☎ 032-440-3977

### 서구·옹진군 공공 도서관 확충

사업 내용	서구 공공 도서관 10개관에서 11개관으로 확대, 옹진군 공공 도서관 4개관에서 6개관으로 확대
시행 시기	2024년 하반기
문의	문화정책과 ☎ 032-440-7874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소

사업 내용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소
시행 시기	2024년 하반기
문의	체육진흥과 ☎ 032-440-4093





갯벌 위에 만든 아름다운 기적. 수많은 도전 끝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한 영종국제도시에 다시금 ‘초대형 잭팟’이 터질 전망이다. 국내 첫 아레나 공연장(ARENA)을 품은 역대급 리조트의 개장으로 ‘K팝의 새 시대’를 예고한 것. 전세계에서 몰려온 팬들이 영종도를 들썩이게 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간 그곳엔 이미 눈부신 K팝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150m의 초대형 미디어쇼가 시민들의 발길을 잡는다. 순간 시공간이 멈춘 듯하다.

‘국내 1호 아레나 공연장’ 개장  
영종도에서 오로라  
K팝의 새 시대



12월 2일, 국내 1호 아레나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3 MMA’출처 인스파이어 아레나

## 빠어난 몰입감, 압도적 사운드 ‘환상적 공연장’

지난 12월 2일 K팝 팬들의 시선이 인천 영종도로 쏠렸다. 음원 플랫폼 멜론의 연말 시상식 ‘2023 MMA’가 영종도의 ‘국내 1호 아레나, 인스파이어 아레나’ 개장 첫 행사로 열렸기 때문이다.

아레나는 음악 전문 시설을 갖춘 대형 전문 공연장을 뜻한다. 우리나라 첫 아레나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시설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착공한 지 4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최대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과 공연 문화의 역사는 아레나 개장 전후로 나뉘 것이다.” 이곳에서의 첫 공연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말이다. ‘시야가 넓다’, ‘사운드가 압도적이다’, ‘가수의 숨소리까지 포착된다’ 관객들의 평가도 호평 일색이다. 실제로 이곳은 라이브 공연에 중점을 두어 최고 수준의 음향 설비와 함께 최첨단 무대 시설을 갖췄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70m로 기존 공연장과 비교하면 10% 이상 가깝다. 덕분에 콘서트의 열기를 생생하게 나눌 수 있다.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가까워서 떨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2~4층은 객석 단차가 크게 설계돼 어떤 자리에서도 가수의 전신이 한눈에 들어온다.

장현기 인스파이어 아레나 담당 상무는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설계 단계부터 라이브 콘서트에 최적화한 설계가 들어간 국내 최초 아레나”라며 “매해 60%는 콘서트, 30%는 e스포츠, 10%는 정부·기업 행사 등을 유치해 티켓 매출로 연간 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공연 시장 전체 매출(1조 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 K팝 콘텐츠의 성지, 영종도

‘국내 첫 아레나 개장’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첫 달부터 태민과 동방신기의 콘서트, SBS 가요대전 등 대형 콘서트와 일정이 줄줄이 이어졌다. 전 세계 190여 개의 도시와 연결된 영종국제도시가 거대한 K팝 콘서트를 매개로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변신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수의 숨소리까지 관객의 가슴에 도달하는 공연장, 동북아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품은 대한민국 최초·최고의 아레나가 오늘 인천에 우뚝 섰다. 새해 아침 찬란하게 솟아난 태양처럼, 영종도에서 ‘K팝의 새 시대’를 기운차게 열어젖혔다.





아레나뿐 아니라 호텔과 카지노 등이 한 지붕 아래 동지를 틀어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연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문을 연다.

숫자로 보는 ‘인스파이어’

2조 원  
총 사업비

46만 1,661㎡  
리조트 면적(축구장 64개 넓이)

1275실  
객실 수(3개 타워)

1만 5,000명  
공연장 관객 수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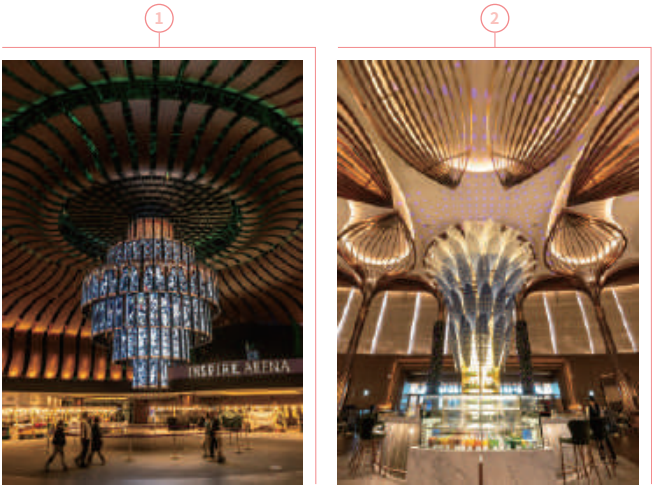
9,500㎡  
워터파크 면적

30년간 167조 원의 ‘초대형 잭팟’

인스파이어는 첫해 3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개장 7주년을 맞은 ‘파라다이스시티’와의 경쟁도 본격화되며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주준의 매출을 올렸다.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장기 프로젝트로 모두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 평) 전체 부지 중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사측은 향후 30년간 약 167조 원의 생산 효과, 60조 원의 부가 가치 효과를 점쳤다. 인스파이어 개장을 계기로 우리 시는 영종도가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는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모히건의 노하우와 글로벌 허브 공항을 곁에 둔 영종도의 접근성을 살리면 싱가포르·마카오 같은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현재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운영되는 도시는 제주와 인천뿐이다.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 클러스터의 메카로 성큼 다가섰다.

낮선 영감으로의 초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2023년 11월 베일을 벗었다. 호텔을 비롯해 공연 시설, MICE 시설, 미디어아트 거리, 실내 수영장과 식음료 매장 일부를 열었다. 이후 2024년 1분기에 카지노와 리테일 몰을, 이어 2분기에는 야외 공원과 실내 워터파크, 푸드 코트, 전시관 등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모기업 모히건사는 코네티컷·뉴저지·워싱턴·네바다 및 나이가라라 폭포 등 북미 지역과 한국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포함해 전 세계 총 8개 복합 리조트를 소유·개발·운영 중인 리조트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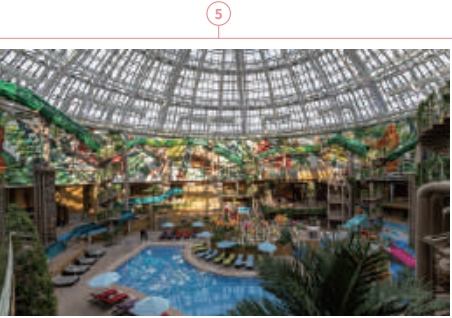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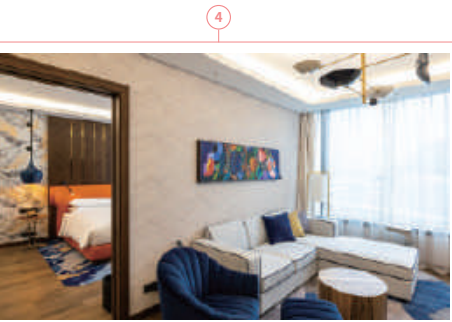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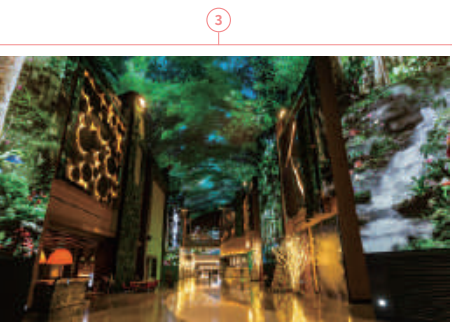
1 — **로툰다** 환상적인 아트쇼가 펼쳐지는 길의 끝, 번쩍이는 상들리에가 춤을 추는 초대형 원형 홀 ‘로툰다’가 시선을 잡아챈다. 초호화 리조트의 한대를 충분히 즐기다 국내 최초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공연을 즐기면 된다.

2 — **식음료장**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미식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직영 레스토랑 10곳과 다양한 외식 브랜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유라시아 최초로 문을 여는 ‘마이클 조던 스테이크 하우스’ 등은 벌써 입소문이 났다.

3 — **오로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는 길이 150m, 높이 25m.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아르떼뮤지엄을 조성한 현대퓨처넷과 합작한 작품이다.

4 — **호텔 객실** 3개 동으로 구성된 호텔과 카지노 등이 한 지붕 아래 동지를 틀어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호텔은 숲, 바다, 태양을 콘셉트로 총 1,275개 객실을 운영한다. 또한 연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문을 연다.

5 — **스플래시 베이** 365일 여름이 펼쳐지는 실내 워터파크 ‘스플래시 베이’는 유리 돔으로 덮여 있어 푸른 하늘을 선사한다. 다양한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플로팅 요가, 수중 영화 감상과 같은 특별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문화로 127  
문의 032-580-9000



돌이 앉기도 벅찬 테이블에 몸을 틀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주방. 20평 남짓한 명장의 빵집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길쭉한 조리모를 쓴 채 주방에서 나오는 명장의 첫인상도 마찬가지였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대가의 아우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영락없이 마음씨 좋아 보이는 이웃집 아저씨였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박재현 포토저널리스트



## 아픈 손가락이 빛는

## 꿈과 희망

인천광역시 14번째 명장  
최창진



취재 영상 보기

최창진(58) 명장이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빵뜨락’이라는 이름으로 제과점을 차린 것은 지난 2003년이다. 개업 후 20년 만에 인천에서 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명장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인천이 제2의 고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이 그에게 기회의 땅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도시가 바로 인천이었다.

전남 강진이 고향인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가 고교 1학년 때 부모님은 행상하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방앗간을 차렸다. 그는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 형과 영민한 두 동생에 비해 특별히 돋보이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방앗간 일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그가 돕게 됐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앗간을 물려줄 테니 맡아서 해보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과·제빵 쪽에 관심을 더 두고 있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케이크와 빵을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한 거지요.”

방앗간을 물려받았지만 떡 대신 빵을 선택한 그는 1985년 고교 졸업과 동시에 제과점에서 보조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밤새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기술 한 가지 배우는 식으로 실력을 연마했다.

인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군 제대 후 젊은 혈기에 차린 가게가 두 번이나 망하면서부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찾은 곳이 부평의 랑데부제과점으로, 그는 1994년부터 이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인천에 등지를 틀었다. 그의 인천살이는 지금의 ‘빵뜨락’으로 이어졌고 개업 3년 후인 2006년에는 제과 기능장까지 취득했다. 그런 그에게 10여 년 전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인근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쫓딱 망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7명이 일할 정도로 장사가 잘됐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님들을 모두 뺏겼어요. 단골도 많았고 동네에서 인심도 잃지 않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자본을 앞세운 프랜차이즈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한번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밖에 나갔다가 차마 죽지 못하고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을 때였다. 뭔가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당시 초등학교 2년생이었던 막내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다. 막내의 손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제품인 소보루빵이 들려져 있었다.

“아빠, 우리 집 망하는 거 맞아?” 고사리손에 들린 소보루빵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막내의 눈물로 젖어갔다. 그 소보루빵은 빵뜨락의 단골이었던 친구의 엄마가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잔뜩 사서 아들 친구들에게 나눠준 빵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엄마가 ‘너희 집 곧 망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역장이 무너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막내의 눈물은 그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시작했어요. 대출을 받아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당뇨 환자를 위한 빵을 개발하는 등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다 보니 손님도 차근차근 다시 돌아오더군요.”

오래전부터 베푸는 삶이 몸에 밴 그였지만 시련을 겪고 나서는 봉사와 후학양성에 더욱 매진했다.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담은 2종의 제과 기술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5종의 제과·제빵 도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 표창, 인천광역시장 표창,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위촉 등 화려한 이력이 쌓여갔다. 하지만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의 봉사 이력이다. 다문화가정 케이크 및 빵 만들기 봉사,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지재활학교 및 요양원 봉사 등 빵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다. 이로 인해 당초 장관 표창 후보자였던 그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관 표창 심사 과정에서 그의 봉사 이력이 재평가를 받아 훈격이 격상된 것이다.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로서는 이를 것은 다 이런 듯한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단다.

“빵으로 인천의 특산물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극복한 제2의 고향 인천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명장은 자신의 정성으로 빚어낸 인천의 특산물을 찾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물리는 날을 상상하는 듯했다.





시  
민  
의  
시  
선

視線

2024년  
새해 풍경

2024년의 시작, 시민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새 희망 잔뜩 머금은 반짝이는 눈망울로 바라본 시민의 시선을 따라갑시다. 시선의 끝자락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시민의 눈에 비친 새해 풍경, 새해 소망을 담았습니다.



#템플스테이 #강화도 #전등사

첫 번째 시선

버킷리스트였던 ‘템플 스테이’를 통해 강화도 전등사에서 일출까지 봤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나지만, 할 수 있었던 것들, 2024년에는 미루었던 많은 일들을 해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김경아(동구 솔빛로)

#흰눈내린날 #눈사람한쌍  
#눈부신2024년

두 번째 시선

포슬포슬 눈 내린 어느 날, 혹여나 외롭지는 않을까 작은 눈사람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나날이 따스하기를 기원해봅니다. 눈부신 미래로 가득할 2024년이 기대됩니다!

황아람(남동구 백범로)



2 3  
4 5

#아내와함께 #일출여행 #2024년도행복

네 번째 시선

아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동해 일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동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2024년, 인천 시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최우준(계양구 주부토로)

#하루하루 #점선면 #넓은세상

다섯 번째 시선

하루하루 연속되는 시간이 쌓여 나를 만듭니다. 작은 점이 모여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도형이 되듯, 새해에는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나는 비행기처럼 나의 삶을 채워보려 합니다.

박서준(연수구 해돋이로)

#아들에게 #머지않은전역 #행복한기다림

세 번째 시선

군대 간 작은아들에게 날마다 안방에서 찍은 노을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아들이 돌아올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뿐, 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은 까먹게 되네요.

정경희(미추홀구 경원대로)

“나만의 아침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1. 아침을 여는 일상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2.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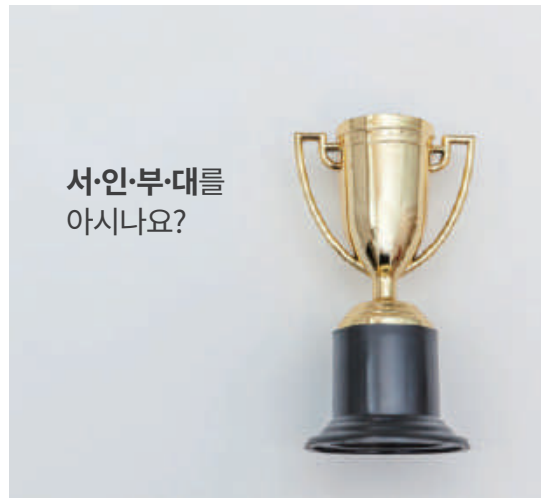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과 사연이 소개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IMAGE NEWS

## 다시 서·인·부·대로! 인천,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시대 개막



서·인·부·대를  
아시나요?

#인천시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 5,000억 원 달성  
#특별·광역시 중 경제 규모 2위  
#부산, 대구 제치고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로 우뚝

01



코로나19도 극복한  
인천 경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역동적으로 성장한 인천 경제  
#2021년 6.4% 이어 2022년 6%대 실질 경제 성장률 기록  
#전국 17개 시도 압도하는 양적 성장

02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

#서비스업과 제조업 성장률이 큰 영향  
#지역총소득 110조 9,000억 원,  
2021년 대비 6조 5,000억 원 증가  
#1인당 개인 소득 2,241만 원, 2021년 대비 5.9% 증가

03



300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산업 현장과 생활 터전에서 땀 흘린 시민의 성과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제조업·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2024년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장 결실 약속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 인천 뉴스 +

- 1 — 우리 시가 2024년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더해 국비 6조 4,377억 원을 확보,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2 —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의 총 매출액**이 10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05조 9,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로 증가**했다.
- 3 —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확대됐다.
- 4 — 3개 도시 철도 역사 내 유휴 공간이 문화 공간과 편의 시설로 탈바꿈한다. **센트럴파크역, 부평삼거리역, 계산역에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특화 역사’를 조성**한다.
- 5 —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가꾸고 건강한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 마음 챙김 학교인 **‘마음으로 정신 건강 아카데미’ 운영**을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다.
- 6 —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서해5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로, 총 사업비 1,4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7 — 2023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 지역의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1,899건의 유해물질을 검사했다. 그 결과, 부적합 판명된 3건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INCHEON NEWS

2024년 인천시 재난 안전 정책, 시민 체감형으로 추진



우리 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재난 회복력이 있는 ‘초일류안전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재난·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와 과학적인 재난 상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취약 시설 위험 요소를 조기 발굴·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불법 행위 대응력을 강화한다. 우선, 고화질·지능형 CCTV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난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예측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기후 변화 양상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관리를 통해 시설물 재난·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상황실 ☎ 032-440-5732

2024년에도 더 간소한 ‘인천 하늘수’ 공급

인천의 수돗물 ‘인천 하늘수’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수돗물 분야 1위 수상 등 국내외 기관에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4년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생산·공급, 지속 가능 최적 상수도 관리 체계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상수도, 상수도 경영 합리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21개 중점 과제를 추진진해 시민에게 안심과 만족을 선사할 계획이다.

경영관리부 ☎ 032-720-2022

지방세 체납 징수 총력, 가상 화폐·대여 금고까지

우리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 정리 전담반인 ‘오메가추적징수반’과 ‘알파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총 7개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 수색, 공영 주차장 연계 체납 차량 알림 시스템 구축·운영, 가상 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 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 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운 체납액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그중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 9,000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 재산 171억 원, 지역개발채권 1억 8,000여만 원, 은행 대여 금고 9억 2,000여만 원도 각각 압류했다.

납세협력담당관 ☎ 032-440-2632

국가 세수 감소에도 역대 최대 국비 6.4조 원 달성



우리 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을 확보했다.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더하면 6조 4,377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 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 감소(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재정관리담당관 ☎ 032-440-1663

전국 최고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최고의 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의 총 매출액이 10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23년 6월부터 IFEZ에 입주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외투 사업체는 1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말 기준 IFEZ 입주 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05조 9,361억 원으로 전년(90조 17억 원) 대비 17.7% 증가했다. 지구별로는 송도 86조 7,966억 원, 영종 15조 9,850억 원, 청라 3조 1,545억 원으로 나타났다. IFEZ 입주 전체 사업체 수는 3,821개로 전년(3,481개) 대비 9.8%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2,467개, 영종 736개, 청라 618개였다. 종사자 수는 전체 11만 557명에 달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032-453-7103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혜택, 하수도 요금 감면

우리 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확대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각각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수과 ☎ 032-440-3613

인천 시민, 삶에 대한 만족도 높아져

우리 시는 ‘2023년 인천사회지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인천데이터포털을 통해 공표했다. 2023년 인천사회지표는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 시 표본 9,000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건강·가구와 가족·사회통합·안전·환경 등 11개 부문 172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조사 방식은 현장 방문과 비대면(인터넷)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삶’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77점(10점 만점)과 3.50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높아진 것(0.11점/0.04점 ↑)으로 나타났다. 생활 환경의 경우, ‘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36점(5점 만점)으로 전년(3.26점) 대비 증가하는 등 의료·보건 환경(3.35점→3.52점), 교육 환경(3.28점→3.41점), 수질 환경(3.22점→3.37점), 대기 환경(3.02점→3.15점), 문화·체육 환경(3.07점→3.19점)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2023년 인천사회지표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인천데이터포털→통계 정보→통계 간행물→사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기획관 ☎ 032-440-2302

광복부터 인천상륙작전까지, 역사 도서 2종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 역사를 주제로 한 2023년도 학술조사 보고서 <1944~1950 국외 기관 소장 연합군, 미군 생산 인천 자료>와 소장 유물 자료집 <이종화와 문학산>을 발간했다. <1944~1950 국외 기관 소장 연합군, 미군 생산 인천 자료>는 광복 전후, 6·25전쟁의 발발과 인천상륙작전까지의 격동기 인천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과 유엔 아카이브(UN ARMS) 등 국외 기관이 소장 중인 기록물을 통해 살펴본 결과물이다. <이종화와 문학산>은 올해 인천시립박물관이 확보한 이종화(1911~1974) 선생의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이종화 선생은 의사이자 사진작가로, 1965년 <문학산>, 1968년 <인천사진문화사>를 저술했다.

유물관리부 ☎ 032-440-6745



INCHEON NEWS

인천시립합창단 신임 예술감독에 윤의중 지휘자



우리 시는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에 윤의중 지휘자를 선임했다. 윤 예술감독은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인천시향을 이끌게 된다. 윤 예술감독은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합창 지휘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창원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에 이어 최근 6년간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을 지내는 등 20년 가까이 프로 합창단을 지휘했다. 인천시향의 제8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그는 오는 4월 12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개최될 인천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인천 시민들과 정식으로 만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 032-420-2736

주거 정책 정보가 한곳에, 인천주거포털 개시

우리 시의 주거 정책 관련 종합 정보가 한곳에 모여있는 포털 사이트가 새롭게 구축·운영된다. 시는 분야별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합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인천주거포털(<https://www.incheon.go.kr/housing/>)’을 1월 1일부터 개시했다. 포털은 주거 정책, 공공 임대, 주거 복지, 전세 피해 등 분야별 주거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정책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또한, 전세 피해 관련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 공신력 있는 온라인 주거 정책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정책과 ☎ 032-440-4742

지하철역에 3곳에 문화 공간과 편의 시설 조성

인천의 3개 도시 철도 역사 내 유휴 공간이 문화 공간과 편의 시설로 탈바꿈한다. 우리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 부평삼거리역, 계산역 등 3곳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특화 역사’를 조성한다. 먼저, 지난해 12월 말 센트럴파크역에 친환경 소재인 이끼로 벽을 꾸민 모스월<sup>Moss wall</sup>을 설치했다. 센트럴파크역과 재외동포청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된 모스월에는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 등 인천의 랜드마크를 표현해 인천과 재외동포와의 연결성을 강조했고,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는 부평삼거리역과 계산역이 그 무대다. 부평삼거리역에는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행복 누리역’이 들어서고, 계산역에는 25m 유리벽 유휴 공간을 활용해 개방형 문화·역사 갤러리를 조성한다.

교통정책과 ☎ 032-440-3853

전국 6개 대학교 외국 학술지를 집에서 편하게

미추홀도서관은 강원대학교 등 국내 대학교의 외국학술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외국 학술지 무료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학술지 무료 원문 복사 서비스’는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의 원문 복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력 후 원하는 수령처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추홀도서관은 이화여대, 부산대 외국학술지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에 이어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4개 센터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전국 6개 대학이 보유한 외국 학술지의 원문 복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학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외국 학술지 문헌 복사’ 메뉴에서 원하는 학술지를 검색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문헌정보부 ☎ 032-440-6636

인천 지역사 연구 도서 100여 권, 전자책으로 공개



우리 시는 1월 2일부터 인천광역시사 및 인천역사문화총서 약 100여 권을 전자책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리 시는 2002년부터 인천 지역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향토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사 및 인천역사문화총서 약 100여 권을 발간해왔다.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그간 발간한 책자를 고화질의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인천 지역사 연구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우리 시는 1965년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이래, 1973년 <인천시사>를 시작으로 약 10년 주기로 편찬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3년 이후 매해 주제가 편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유산과 ☎ 032-440-8384

어른들의 마음 휴식을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운영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가꾸고 건강한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 온라인 마음 행감 학교인 ‘마음으로 정신 건강 아카데미’ 운영을 지난해 12월 26일 시작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마음으로 정신 건강 아카데미는 ‘앞만 보고 달려온 성인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마음 조절을 할 수 있는 심리 학교 개설 요청’이라는 시민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마음 건강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다. 우리 시는 보다 질 높은 시민의 마음 건강 자가 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을 받아 인지 행동 치료(수용 전념 치료)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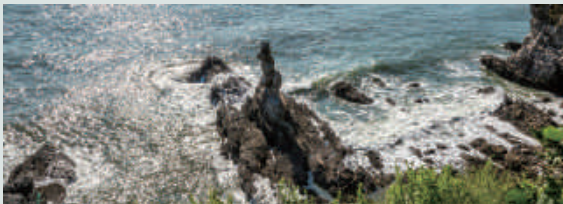
건강증진과 ☎ 032-440-1583

수산물 1,899건 유해물질 검사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 차단

2023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 지역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년 대비 3배 많은 1,899건의 수산물 유해물질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3건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물질 검사는 대형 할인점, 어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은 총 3건으로 광어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1건, 마른 김에서 인공 감미료 2건이 발견돼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안부두 인근에 수산물 현장 검사소 설치·운영을 통해 도매 단계 활어를 대상으로 항생제 신속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남촌농수산물검사소 ☎ 032-440-5564

남북 간 긴장 고조, 서해5도 특별 지원 강화



우리 시는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서해 5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로, 총 사업비 1,4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 원) 대비 267억 원(23.1% 증가)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7.2억 원 ↑), 노후 주택 개량 사업(3.3억 원 ↑), 연평도 여객선 오전 출항 지원(14.2억 원 ↑), 해수 담수화 시설 공사(14.5억 원 ↑),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5억 원 ↑), 그 외 기반 시설 구축 계속 사업(약 260억 원 ↑) 등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섬해양정책과 ☎ 032-440-4993



COUNCIL NEWS

오직 시민, 2023년 인천시의회 마무리



제9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1년간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조례안 258건, 동의안 81건, 결의안 및 건의안 18건, 기타 안건 72건을 처리하고, 의원연구단체 17개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조례로 의회운영위원회 5건, 행정안전위원회 40건, 문화복지위원회 40건, 산업경제위원회 21건, 건설교통위원회 25건, 교육위원회 28건을 처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앞장섰다.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시상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2023년도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 체험을 통해 민주 시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매년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도 의정 아카데미에 참가한 41개 학교 1,10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63명의 학생들이 심사를 거쳐 입상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달린다



인천시의회는 제291회 정례회 기간 중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다년간 국제 행사 경험을 쌓아온 인천이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APEC 3대 비전에 부합하는 최적지라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담은 인천에서의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용희 의원, 부위원장에 신성영·문세종 의원을 비롯해 박용철·석정규·유승분·이순학·장성숙·조현영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개최지 확정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강화섬쌀로 이웃 사랑 나누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이번 기부금은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맺은 ‘강화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 300가구에 강화섬쌀(10kg)로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과 울란바토르의 아름다운 동행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가 지난해 7월에 이어 12월에도 인천을 찾아 양 도시 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양 도시 의회는 각종 문화 교류 활동 및 인천-몽골 희망의 숲 조성 사업 확대, 미래 산업 및 청년·학생 교류, 의료 지원 봉사 등의 협력 방안에 따라 더욱 심층적인 대화를 나눴다.

원도심 학생도 글로벌 교육 받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교육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 등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협약식’을 체결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지역 사회 공헌으로 글로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원도심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영을 총괄하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생 100명의 멘토와 인천 원도심 초·중학교 학생 200여 명의 멘티를 매칭해 주 1회 2시간씩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참여 멘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 교육청은 해당 프로그램 홍보 및 만족도 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행·재정적 지원을 각각 맡는다.

청년 시의원, 청년을 위해 뭉치다



인천시의회 청년 시의원들이 인천시 청년 정책 전반과 인천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여야 구분 없이 1980~1990년대에 출생한 7명의 의원들로, 위원장에 석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이단비·김대영 의원을 비롯해 김용희·신성영·문세종·정종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자리, 창업, 스타트업,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결혼, 출산 등 인천시 모든 실·국에 걸쳐있는 청년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인천의정소식>으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시다!



인천시의회 소식지 <인천愛의화>가 2024년부터 <인천의정소식>으로 새롭게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시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인천의정소식>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로도 발행되며, 무료 우편 또는 모바일 웹진을 통해 구독 가능합니다.

**<인천의정소식> 구독 안내**  
인천시의회의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의정소식>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 032-440-6136



<인천의정소식>  
바로가기



여기,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달리는 인천의 오늘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천의 찬란한 내일을 여러분만의 빛깔로 색칠해주세요. 새하얗던 공간이 시민의 색으로 물들어갈수록, 인천의 미래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완성됩니다.

인천의 눈부신 오늘과 찬란한 내일

##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 소래습지생태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

인천이 ‘국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대는 인천이 품은 보물, ‘소래습지생태공원’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따라 지정 가능한 도시 공원을 말합니다. 국가도시공원에 이름을 올리면 국가적 위상에 걸맞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최근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 이슈도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5,921억 원을 들여 인근 송도람사르습지를 포함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내 최초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유는 명확합니다. 갯골 녹조화와 해수 담수화로 사라져 가는 소래습지 갯벌의 염생 식물을 보전하고, 문화 공간으로 서의 가치를 이어나가 시민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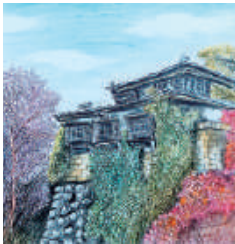
소래습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염생 식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칠면초와 해홍나물, 통통마디 등 무려 216종에 달합니다. 이곳은 천연 기념물 저어새 등 138종의 철새가 찾아와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환경단체와 생태학자들은 주변 개발과 도시화로 파괴되고 있는 서해 갯벌의 중요한 대체 서식지로 소래습지를 꼽습니다. 소래습지 갯벌은 갯벌 위로 바닷물이 매일 드나들지 않아 조개류가 없는 대신 갯벌 상부에 게와 갯지렁이 등 저서생물 436종이 숨을 쉽니다.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 작가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담당자 앞  
② 메일 : gmi2024@naver.com  
기간 2024년 1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 시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2023년 12월호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현주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서애자 남동구 논현로



신미성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정세희 서구 서곶로



조요한 부평구 마장로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요금과 함께 만족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알기 쉬운 요금 체계로 개편됩니다.
인상 이유	지속적인 생산 원가 상승으로 판매 단가와외 격차 심화
개편 내용	업종별 사용 요금 2년간 인상(2024~2025년)
일반용 요금	3개 업태(일반용, 군부대·제조업소, 학교) 통합, 단 일 요금제로 개편
욕탕용 요금	누진 요금 체계 축소(3단계→2단계)
인상 시기	2024년 검침분부터 적용
문의	☎ 032-120

02 시민 안전에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인천형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내용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 차량이 멈춤 없이 목적지에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 제공
효과	교통사고 감소, 골든타임 준수, 예산 절감 등
문의	☎ 032-440-1785

03 건강한 빵으로 건강한 삶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시민이 당류가 적게 들어간 건강한 빵을 드실 수 있도록 당류 저감화 제과점을 확 대했습니다.	
내용	2023년 19개소, 2024년 16개소, 총 33개소 운영
문의	☎ 032-440-2302

04 먼지 없는 쾌적한 봄맞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시행 기간	3월 31일까지
시행 지역	인천 전 지역
시행 내용	공공 분야 사전 이행, 수송·산업·발전·생활 각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건강 보호,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등
문의	☎ 032-440-3520

05 수도 검침, 똑똑하게 해볼까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내용	단순 검침뿐만 아니라, 각 수용가의 시간대별 사 용량을 분석해 전체적인 수도 사용량 관리 가능
특징	제조업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대수용가는 물 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매일 수도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어 물 절약과 요금 민원 감축 기대
문의	☎ 032-120

06 마음을 봅니다, 생명을 봅니다

초등학생 자살 예방 프로그램 ‘마음을 봄, 생명을 봄’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마쳤습니다.	
내용	초등학생 학령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수준별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 정리
계획	관내 초등학교와 자살 예방 사업 수행 기관 대상 배포, 교육 예정
문의	☎ 032-440-1582

07 안심in과 함께 안심 인천

안심in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한 공공 앱
주요 기능	긴급 도움 요청하기, 안심 귀가 서비스, 나에게 전화 하기, 안심 서비스 위치 보기, 활동 반경 이탈 방지 등
사용 대상	시민 누구나
이용 방법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이용 가능
문의	☎ 032-440-5784



08 행복으로 평등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내용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 월 4시간 확대, 안부 확인, 이동 지원, 가사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대상	저소득 취약 어르신 15,574명
인력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099명
문의	☎ 032-440-2825

09 전국 창업 정보를 한눈에

내용	인천 창업플랫폼 홈페이지 고도화 개방
특징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운영 창업지원포털 (K-Startup)과의 연계로 중앙부처 창업 지원 사업 데이터 실시간 게시
홈페이지	http://incheon-startup.kr/main
문의	☎ 032-440-4163



10 타임머신 타고 신석기시대로

내용	기존 전시됐던 구석기 유물을 최근 5년 동안 새로 소장하게 된 구석기 유물로 교체 개편
상설전시실	서구 가정동 출토 주먹도끼 중점 전시
연표실	인천 지역 유적 발굴과 출토 유물로 새롭게 꾸며 인천 고고 유적 시대별 흐름 한눈에 파악
문의	☎ 032-440-6795

11 시민에게 ‘마당’을 빌려드립니다

내용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수시 대관 운영
대상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누구나
대관료	동아리실 무료, 다목적실 유료
예약 기간	수시 운영
예약 방법	미추홀학산문화원 홈페이지
문의	☎ 032-866-3993



CULTURE CALENDAR

새해, 문화로 꽃피다  
2024 January

14 일	19 금
2024 ACI 신년음악회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월 14일 오후 5시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032-453-7700	인천시립교향악단 ‘2024 신년 음악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월 19일 오후 7시 30분 R석 2만 원, S석 1만 원 ☎ 032-453-7726
	25 목
	2024 신년 음악회 ‘우리, 다 함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월 25일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032-500-2053
14 일	
엘림 영 아티스트 시리즈 ‘박지을 비올라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1월 14일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 032-289-4275	28 일
	이중은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1월 28일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 032-289-4275

이달의 전시

인천시 문화유산 활용 정책 1호 공간인 제물포구락부에서 김상유 작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동산중학교 미술·영어 교사로 부임하면서 송학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은성다방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그의 삶과 예술을 탐색하는 데 있어 인천은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연과 고요, 평온으로의 구도 : 김상유 작가의 삶과 예술> 특별전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愛집  
2월 28일까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 매주 월요일 휴관  
☎ 032-765-0261



# 仁

첫 번째 땅 이름  
[인 천]

# 川



글 최재용 연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필자는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나 동인천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인하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부천 소명여고 국어교사와 조선일보 인천 담당 기자, 인천사랑 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연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우수 도서(세종도서)로 뽑힌 <역사와 어원으로 찾아가는 우리 땅 이야기>(21세기북스, 2015년)를 비롯해 땅 이름에 관한 4권의 책을 썼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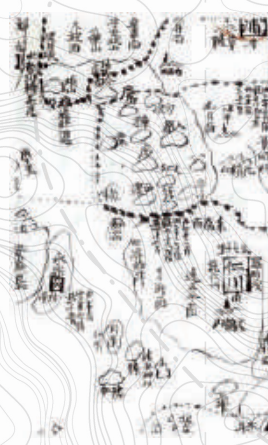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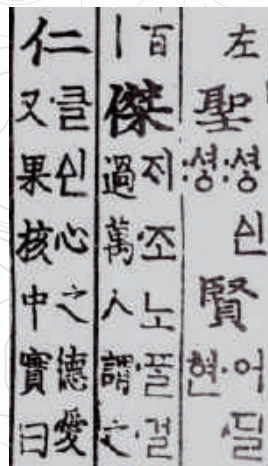
우리 땅 어디나 그렇듯, 인천에도 많은 동네와 땅 이름이 있습니다. 관교동이나 석남동처럼 다소 딱딱한 한자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쑥골이나 개건너와 같이 정겨운 우리말 이름들도 있습니다. 또 월미도나 부평·주안·제물포 등 다른 지역까지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고, 미추홀이나 소성처럼 오래된 이름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늘 입에 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름들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전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월미도 月尾島가 ‘달<月>의 꼬리<尾>처럼 생긴 섬<島>이어서 나온 이름’이라거나 소래 蘇萊가 ‘옛날 삼국시대 말기에 중국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 蘇定方이 이곳에 왔기<來>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식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져 있는 술한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그 이름들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는 자료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굿모닝인천>은 이처럼 잘못 알려진 인천의 여러 땅 이름들의 뜻과 사연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새해부터 ‘땅 이름 이야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연재는 <우리 땅 이야기>(21세기북스, 2015년) 등의 저자인 최재용 연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말합니다.

땅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나 지형적 특성뿐 아니라 고대어·중세어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변화와 흐름,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표현한 ‘한자차용표현 漢字借用表現’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땅 이름들의 설명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내 고장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관심과 애정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천仁川’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진<仁> 내<川>’이다. ‘넋물이 어질다?’ 이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말이며, 무슨 뜻일까. 인천仁川이라는 이름은 조선 태종 임금 13년(서기 1413년), 전국의 행정구역 이름을 새로 정할 때 처음 생겼다. 이때 각 군현郡縣의 이름 뒤에 ‘주州’자를 가진 것은 그 ‘州’자를 ‘산山’이나 ‘천川’자로 고쳤다. 대체로 그 땅이 물에서 가까운 곳에는 ‘천川’자를, 산이 많은 곳에는 ‘산山’자를 붙였다. 인천은 그 직전까지 ‘인주仁州’라 불리고 있었는데, 바다를 끼고 있기에 ‘인천’이 된 것이다. 결국 인천은 ‘인주仁州’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그런데 인주仁州의 ‘주州’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을’을 말할 뿐 다른 뜻은 없다. 그리고 단지 그 땅이 물(바다)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이 ‘州’를 ‘川’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川’도 ‘내(넋물)’가 아니라 ‘고을’이라 해석하는 것이 한결 타당하다. 따라서 인천의 뜻을 푸는 데 핵심은 ‘인仁’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오늘날 ‘仁’은 ‘어질 인’이라고 뜻과 소리를 단다. 이 때문에 흔히 인주를 ‘어진 고을’이라 풀이한다. 그리고 이는 이곳이 ‘7대 어향 七代 御鄉’이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곧, 고려시대 문종에서 인종 임금까지 7대에 걸쳐 임금과 여러 명의 왕비가 태어난 곳이기에 ‘어진 고을’이라 불리게 됐다는 말이다.



- 1 — <훈몽자회>에 나오는 ‘仁’. ‘클 인’이라고 설명돼 있다. 반면 ‘賢’은 ‘어딜(어질) 현’이라고 설명돼 있다.
- 2 — 조선 후기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 <청구도>에 나오는 인천 일대

하지만 이보다는 왕과 왕비라는 큰 인물들이 여럿 태어난 ‘큰 고을’이라 해석하는 것이 한결 타당하다. ‘仁’이 지금은 ‘어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우리 중세국어 때까지는 ‘크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중종 때 나온 한자 漢字 학습서 <훈몽자회 訓蒙字會>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시 역관 譯官(통역사)이자 뛰어난 언어학자이기도 했던 최세진이 지은 것으로, 그는 여기서 모두 3,360 글자의 한자에 대해 당시의 한글로 각각의 소리(음)와 뜻(훈)을 달아놓았다.

그런데 이를 보면 ‘仁’을 ‘클 인’이라 설명하고 있다. 반면 ‘賢’자에 대해서는 ‘어딜(어질) 현’이라 풀이해놓았다. 이밖에도 다른 여러 자료들을 통해 예전에는 ‘仁’이 ‘크다’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덕망 德望이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부르듯, ‘인천’은 ‘(왕과 여러 명의 왕비가 태어난, 덕망이 있는) 큰 고을’이라는 뜻이다. ‘어진 고을’이라는 해석을 굳이 틀리다고 우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仁’이라는 글자의 당시 뜻이나, ‘크다’는 말이 갖는 느낌을 생각할 때 ‘큰 고을’이라는 해석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인천은 ‘큰 고을’이다.



## 굿모닝인천

## 서른, 인천 더 아름다운 날들

이제, 서른. 인생 앞에 더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집니다. <굿모닝인천>이 서른 살을 맞았습니다. 1994년 1월 첫 호를 펴내고 2024년 1월 361호를 펴내기까지, 인천 시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짜 인천’이 담긴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30년. 1994년 1월 <내고장인천>으로 시작해 <굿모닝인천>이 올해로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의 섬, 바다 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그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발걸음이 남긴 흔적을 밟았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리는 인천의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 <굿모닝인천> ‘이제, 서쪽에서 해가 뜹니다’

2001년 3월에는 시민 공모로 <굿모닝인천>이라는 새 이름을 새깁니다. 당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서고 송도국제도시가 한창 개발 중이었습니다. 인천을 알리는 첫 TV 광고를 했습니다. 이때 광고 문안이 ‘이제, 서쪽에서 해가 뜹니다’입니다.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해가 뜬다는 참신한 발상.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이 솟구치는 도시 인천, <굿모닝인천>처럼 딱 알맞은 이름이 또 있을까요.

### 월 10만 부 종이책부터 영상·온라인책까지

창간호 발행 부수가 1만 5,000부에 불과했던 <굿모닝인천>은 2008년 2월 10만 부까지 늘어났습니다. 인천은 물론이고 국내외 여러 도시에도 책이 배송됐습니다. 10만 부는 당시 인천 전체 100만 가구 중 10분의 1 가구에 배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그 시기에 종이 매체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줍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굿모닝인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자책, 웹진, 모바일 북 뉴스레터 등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혀 언제 어디서든 접하기 쉬운 매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취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과 오디오북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촉감을 느끼며 간직하는 종이책부터 디지털 영역까지, <굿모닝인천>이 시민 곁에 늘 가까이 머뭙니다.



<굿모닝인천>을 빛낸 ‘아름다운, 인천의 얼굴들’.  
2020년 1월 호, 대한제분의 김수철 기장(왼쪽),  
2018년 7월 호, 조양방직 ‘신문리 미술관’의 이용철 대표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시민의 잡지. 시가 결국 ‘시민과 함께하는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잘 건드렸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원하는 잡지예요. -구독자(50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꽤 있는데, 찾아줘서 고맙더라고요. -구독자(40대)

인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줘요. 타 시도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전문가

2019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시민·전문가 인식조사’ 중에서

1994. 01.

### 시작은 <내고장인천>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 홍보지는 1953년 1월 창간한 <인천공보>를 시작으로, 1961년 5월 <재건인천>, 1962년 <약진인천>·<약동하는 도시 인천>, 1970년 <시보>, 1989년 <월간시정>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내고장인천>으로 잡지 형식으로는 처음 세상의 빛을 봅니다. 첫 발행 부수는 월 1만 5,000부. 오늘 2024년 1월 호를 내놓으며 세상에 330번째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의 뿌리인,  
1953년 1월 발행한 <인천공보>



<내고장인천>  
1996년 1월 호

2018.~ 오늘



<굿모닝인천> 2018년 12월,  
300호 특집호

그리고 내일

### 시민과 함께 더 아름다운 날들

‘진짜 인천’이 담긴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인천시 대표 홍보 매체 <굿모닝인천>은 1994년 1월 창간한 이래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 인천 사람의 삶을 조명해 왔습니다. 한국사보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을 7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30년, 긴 시간입니다. <굿모닝인천>이 1994년 1월 첫 호를 펴내고 오늘 300호를 맞이하기까지, 인천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모든 순간에 300만 인천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서른, <굿모닝인천>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앞으로도 인천의 이야기와 인천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담겠습니다. 시민의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겠습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인천^ 30년

<굿모닝인천>은 한 달에 한 번 시민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식의 마음처럼 그리움과 설렘 가득한 발걸음입니다. 자식을 마다하는 부모 없듯이 시민들은 두 팔 벌려 <굿모닝인천>을 맞아주셨습니다. 사랑과 격려, 애정 어린 조언에 매번 숙연해집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이 거듭되는 사이, 어느덧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이제 서른 살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굿모닝인천>은 1994년 1월 <내고장인천>이란 이름으로 시민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부터 <굿모닝인천>이란 현 제호로 시민들과의 연<sup>緣</sup>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창간 30주년을 맞아 독자들의 편지를 통해 시민들과 맺은 인연을 되새겨봅니다.

서구의 한 독자는 <굿모닝인천>의 장점으로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아름답게 삶을 일구는 사람들을 보며 감동받는다”며 “다음 달엔 또 어떤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연수구의 한 독자는 “<굿모닝인천>이 집에 도착하면 아들이 제일 먼저 ‘컬러링 인천’ 페이지를 펼쳐 숙제도 제쳐두고 색칠에 몰두한다”며 “아들과 함께 직접 색칠을 해보면서 그동안 아들이 왜 그렇게 ‘컬러링 인천’에 푹 빠져 있었는지 알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고장 인천의 곳곳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 바로 <굿모닝인천>의 편집 방향입니다.

누군가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 삼십에 이르러, 비로소 어떠한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되었다’는 뜻으로 ‘삼십이립’三十而立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서른살 <굿모닝인천>의 편집 방향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봅니다. 30년간 보내주신 독자 및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심보다 선명한 방향 감각으로 시민 행복의 안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로 <굿모닝인천>이 성장하고 발전한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 인천 사람의 삶을 담는 ‘시민의 잡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겠습니다. 독자들의 쓴소리에도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남긴 30년 발자취를 자양분 삼아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仁 · 生 · 네 · 컷

## 청라의 미래와 함께 맞는, 눈부신 새해

인천에서의 행복한 삶을 네 컷 사진에 담는다.

<굿모닝인천>이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을 통해 시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진으로 추억을 선물합니다.

참여 구분용 시민 가족(서구 비즈니스로)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굿모닝인천>을 평소에도 늘 관심 있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민이 읽어주는 오디오북’에도 온 가족이 참여했었네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하는 행운과 더불어, 아내와 함께 좋은 추억까지 만들게 되어 행복합니다. 특히 촬영 장소인 인천로봇랜드는 오랜 시간 표류해오다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니 청라국제도시 주민으로서 뜻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회사 일하고 집안일 돌보느라 분주한 일상이었을 텐데, 바쁜 시간 쪼개가며 식사 과정 공부를 마치고 2월 졸업하는 아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인천 시민 모두가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값진 행복으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해 좋은 추억 만드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2월호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가족, 친구 등 사진을 함께 찍을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짧은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면 기억에 남는 멋진 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참여 신청 gmi2024@naver.com



POSTCARD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24.01.01~2024.12.31

인천남동우체국  
제40094호

받는 사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1

5

5

4

01 JANUARY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상동도  
사진 © 임혁현



성별:(남 / 여)

연락처 :

연령 : (       세)

이메일 :

@

Q1. <굿모닝인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Q2.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천에 특화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 ② 인천의 주요 정책과 시장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 ③ 인천의 문화·생활·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 ④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 ④ 기타( )

Q3. <굿모닝인천>을 통해 얻고 싶은 정보의 유형은 어떠한 것입니까?

- ① 분야별 정책 정보
- ② 관광 명소 및 맛집 정보
- ③ 구인·구직 등 취업 정보
- ④ 실버 소식
- ⑤ 기타

Q4.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 ② 대체로 좋아졌다
- ③ 특별한 변화가 없다
- ④ 대체로 안 좋아졌다
- ⑤ 매우 안 좋아졌다

Q5. 다음 중 <굿모닝인천>을 접한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우편 배송
- ②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
- ③ 학교·도서관 등 교육기관
- ④ 지하철·터미널·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 ⑤ 홈페이지·모바일북 등 온라인 매체
- ⑥ 기타( )

Q6. 인천시와 <굿모닝인천>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032-440-8305